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조한신 작

2024년 최종본 (공연 기본 대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조한신 작

작품 설명

이 희곡은 역사극이다. 역사 속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연극이다. 역사극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그리스 비극이다. 그리스 비극은 당시의 가치관이었던 운명결정론을 기반으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역사극의 형태를 띤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다. 셰익스피어는 역사속의 인물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욕망과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극이 주어진 운명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이후 연극은 다양하게 발전했고, 역사극은 연극의 한 장르 중 그다지 잘 사용하지 않는 장르로 퇴보했다. 서양에서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종종 사용되었다.

우리는 역사극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옛 역사를 연극형식으로 올려 옛날에 벌어진 이야기를 관객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동양의 방식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깨닫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것이다. 즉 서양 의학과 희곡처럼 현재 아픈 부위를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의학과 학문처럼 체질을 튼튼히 하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이 희곡을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희곡 속 시대를 산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겪었고, 그 사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결국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가를 염두에 두며 이 희곡을 읽기 바란다. 특별한 어떤 교훈이나 가치관을 전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표현하길 바란다. 그러면 그 시대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지도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한 시대에 살았던 용감한 사람들, 그 시대의 조류에 역행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희곡을 읽고 공연하길 바란다.

등장인물

여러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각 장면에만 나오는 인물들로 구분 정리하였다.

윤동주	시인.
송몽규	윤동주의 친구. 고향 친구. 4촌 친척. 최후까지 함께 지냈다.
문익환	윤동주의 친구. 고향 친구. 10대 시절까지 함께 보냈다.
윤영석	윤동주의 아버지. 신학문 교육을 받은 세대. 당시 상업에 종사.
윤하현	윤동주의 할아버지. 농부.
김 용	윤동주의 어머니. 독립운동가 김약연의 이복여동생.
강처중	윤동주의 친구. 연희전문학교 시절 친구. 유학 시절 때도 편지로 교류.
정병욱	윤동주의 후배. 연희전문학교 시절 친구.
라사행	윤동주와 송몽규의 고향 선배. 당시 감리교 신학교 재학.
박춘혜	윤동주가 좋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 당시 일본 유학 중.

박춘혜의 오빠 박춘혜의 오빠. 당시 일본 유학 중.
백인준 일본 유학 시절의 친구. 운동주의 연희전문학교 동기.
장성언 일본 유학 시절의 친구. 운동주의 연희전문학교 선배.

* 제 1 장 평양 승실학교 장면

임인식 승실학교 시절 선배. 당시 학생회장.
윤산온 승실학교 교장. 원래 이름은 조지 맥쿤 George McCune.
야스다케 나오(安武直夫) 평안남도 도지사.
일본 관리 평안남도 도청에서 근무하는 관리.
학생 1, 2 승실학교 학생.
경찰 승실학교 학생들을 통제하던 경찰.
승실학교 학생들 / 경찰들

* 제 4 장 오프닝 설정 장면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를 상징한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대외적 발표를 알려주는 역할.
김동환 친일파 작가.
기자 다른 기자와 달리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
일본 경찰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 경찰.
종교지도자 친일파 종교인.
기자단 여러 기자들 그룹, 단신을 보도하는 장면을 연기한다.
이광수 친일파 문인들.
노천명 친일파 문인들.
최남선 친일파 문인들.
주요한 친일파 문인들.
친일 문인들 / 친일 종교인들 / 일본 경찰들

* 제 5 장 도일을 위한 승선 장면

안내원 선박승선관리원.

* 제 6 장

이지마 노부유키(飯島信之) 릿교대학 교련 담당 군인.
일본대본영 일본대본영을 상징. 당시 일본 군부의 대외적 발표를 알려주는 역할.
일본군인들 / 일본사람들 공원 장면에서 등장.

* 제 7장 본 도쿄, 교토 장면

특고 형사 교토에서 활동하는 특별고등계 형사.
특고 서장 교토 특별고등형사계 수장.
김주현 운동주와 송몽규의 친구. 대학생 신분.
송용한 운동주와 송몽규의 친구. 대학생 신분. 정확한 이름이 확인되지 않았음.
고희욱 운동주와 송몽규와 함께 체포된 고등학교 학생.
일본대본영 일본대본영을 상징. 당시 일본 군부의 대외적 발표를 알려주는 역할.
일본육군 일본육군을 상징.

일본장교	일본군 장교.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친일지식인 남	상징적 인물.
친일지식인 여	상징적 인물.
일본경찰	일본 경찰을 상징. 당시 일본 경찰의 행태를 알려주는 역할.
정보 형사	특별고등계형사들에게 현재 정보를 전달해 주는 형사.
고오로기	특별고등계 형사. 운동주를 심문했던 형사.

* 재 8 장 취조, 재판 장면

특고 형사	송몽규 담당형사.
고오로기 사다오(興梧定)	운동주 담당 형사.
에지마 다카시(江島孝)	담당 검사.
재판장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이시이 히라오(石井平雄).
정병욱 모친	정병욱의 어머니.

* 제 9 장 형무소 장면

간수들	후쿠오카 형무소 간수들.
-----	---------------

무대 설명

무대는 높이가 다른 단이 펼쳐서 쌓여 있다. 산이 많은 한반도를 형상화한 듯하며, 삶의 굴곡,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형상화한 무대이다. 실질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을 다양한 위치에 놓을 수 있고, 다양한 무대그림을 만들 수 있는 무대장치이기도 하다.

공연 상, 가장 필요한 것은 스크린이다. 역사적 사실과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가장 바람직한 세트는 무대 맨 위쪽에 배경막을 걸고, 필요할 때만 내려오는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이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다면, 무대 위쪽 상단에 고정 스크린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뒤 배경막을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각 장마다 장면에 맞는 장치를 무대 안으로 들여보내 다양한 무대그림을 만든다. 그 장면의 장소에 어울리는, 또는 그 장소를 상징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무대 바턴을 이용해서 상징물을 무대 안으로 내릴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무대 배경으로 호리존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호리존트 앞에는 검은 스크림(Scrim 샤막)을 걸어 호리존트에 비치는 조명의 빛을 퍼지게 만든다. 기본 장면에서는 위쪽은 어둡고 아래쪽은 밝지만, 가끔은 위쪽이 밝게 되고 아래쪽이 어두울 때도 있다. 스크림을 사용하게 되면 영사되는 화면이 흐려지는데, 화면이 제대로 나오느냐에 따라 스크림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연 형식에 대한 설명

역사극은 역사상의 인물과 역사상의 사건을 다루는 연극이다. 등장인물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일반 연극과 달리, 역사극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에 반응하는 인물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등장인물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반응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연기자들은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들을 분석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맡은

인물이 어느 편에 있으며, 어떤 현실인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런 해석이 역사극 인물 분석의 뼈대이다.

역사극의 특성상 장면이 짧게 연결되며 진행된다. 역사상 한 사건이 벌어질 때면 상반되는 반응이 있기 마련이고, 상반되는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극에서는 이 두 경향을 무대에서 보여주어서 두 세력 간의 대비를 보여주게 된다. 공간과 시간이 짧게 연결되거나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연극 기법 측면에서 보면, 영화의 컷이 넘어가듯이 무대 장면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기법이 이 연극에서 많이 사용된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장의 도입부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 다음부분은 그 상황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의견 충돌, 행동의 선택들로 이어진다. 장면의 엔딩은 각 장의 결과이거나, 다음 장면에 대한 전조이다. 다음 장면과의 대비를 생각해서 이해해야 한다.

역사극을 너무 거대한 담론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등장인물들은 당시의 삶속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자신의 가치기준에 의하여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이 후세에 의하여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역사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은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집중하기 바란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역사극을 과거의 시점에서 표현하면, 현재의 시점을 가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두 시점을 종합해서 극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판단으로 과장하지 말고, 그 당시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이것이 역사극 공연의 원칙이어야 한다.

앙상블 연극에 대하여

이 작품은 앙상블(Ensemble) 연극 방식으로 공연을 하게끔 쓰여졌다. 앙상블 연극이란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양한 장면에서 등장하면서 배역을 고르게 맡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1장에서 조연급으로 등장한 후에 한참 후에 다시 등장할 경우, 그 사이에 단역을 맡는다든지, 엑스트라 배역을 연기하면서 공연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이 방식은 “주연과 조연, 단역 모두 연극에 공평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공연을 책임진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배역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보다는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등장인물이 많은 역사극의 경우,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

대사가 많은 주연배우도 중요하지만, 주연배우가 더 돋보이도록 받쳐주는 조연, 중요 배역들이 충돌할 수 있는 배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단역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배우가 함께 뛰며 연기하는 것이 앙상블 공연의 기본 방식이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토탈 풋볼, 토탈 발리볼 같은 개념이다. 무대 위의 모든 배우가 배역의 경중 없이 중요하다는 태도이다.

모든 배우가 각각의 장면들을 책임지고 공연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장면과 연기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연기력이 상향평준화되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부여해야 작은 역을 맡은 배우도 최상의 연기를 보여주게 되고, 전체 공연의 밀도가 높아진다.

배역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서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이 고르게 무대에 등장하도록 배역을 배분해야 한다.

프롤로그

음악과 함께 운동주의 <서시>가 스크린(또는 메인 커튼 위)에 영사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영상이 종료되면 모든 조명이 꺼진다.

무대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멀리서 비행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화면에 구름이 보인다. 평온한 구름이다. 비행기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화면에 하늘을 나는 폭격기의 모습이 보인다. 이어서 그 화면 위로 <1945년 8월 6일>이란 글자가 뜬다. 이어서 <히로시마>란 글자가 추가된다. 글자가 사라지며 화면에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폭발음 소리가 나며 원폭장면이 보인다. 거대한 폭발 구름이다. 이어서 화면이 다시 구름 낀 하늘로 변하며 <1945년 8월 9일>이란 글자로 뜨고, 이어서 <나가사키>라는 글자가 추가된다. 다시 폭발음과 원폭장면. 서서히 화면은 검은색으로 바뀌고, <1945년 8월 15일>이란 글자가 화면에 비치면서 천황의 항복 방송이 나온다. 화면에는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의 모습이 보인다. 무대 양쪽과 뒤쪽에서 한 사람씩 무대에 등장한다. 문익환과 정병욱, 박춘혜이다. 모두 손에 책과 편지를 들고 있다.

문익환 드디어 끝났어.
정병욱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박춘혜 전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죠?

모두, 생각에 잠긴다. 다 같이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다.

문익환 조금만 더 버티지.
박춘혜 봄까지만 견뎠어도 살았을 거예요.
정병욱 6개월. 6개월만 버티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문익환 몽규도 동주를 따라갔지. 그 추운 겨울, 딱딱한 감옥 안에서 가버렸어.

세 사람, 잠시 말이 없다.

문익환 그래도 용케 살아남았어.
박춘혜 (손에 쥔 종이를 보며) 이것만이 남았네요.
정병욱 (손에 든 시집을 보며)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전부인가요?

문익환 동주의 시. 동주가 가지고 있던 것도 사라지고, 이양하 선생님 것도 사라졌어. 병욱이가 마루 밑에 숨긴 것만 이렇게 살아남았어.

바람이 낮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

문익환 넌 가버렸고, 난 여기 남아 있어. 이렇게 시만 남겨두고 가버리면 그만이니?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문익환 오늘밤에도 저 바람이 불겠지? 황야에 불던,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바람 말이야. 오늘 밤 내 가슴속에도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 올 것 같아. 그 바람 속에서 모든 것들이 기억과 망각 사이를 오락가락 하겠지. 그러다 차차 망각이 기억을 덮어버리게 될 거야.

조명이 서서히 암전되면서, 다음 장면으로 연결된다.

제 1 장

<1935년 12월. 평양>이라는 글자가 스크린에 비춰진다. 이어서 신사의 모습이 보인다.

경무장한 경찰들이 등장하고, 이어서 학생들이 의아해 하면서 등장한다. 송실학교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웅성거린다.

학생들 (웅성거린다.) 여기 신사 아니야? / 뭐 하자는 거지? / 학생회장 데려와! / 우리 축하연 하러 온 거 아니었어... 등등.

임인식 (앞으로 나서며) 이거 뭐하는 겁니까? 여기는 신사 아닙니까?

경찰 여기서 대기한다. 송실학교는 맨 마지막에 예를 표할 것이다.

임인식 우리 보러 지금 신사참배를 하라는 겁니까?

경찰 이건 신사 참배가 아니다. 천황폐하께서 둘째 아드님을 낳으셨으니까 축하의 예를 드리는 것뿐이다.

임인식 신사에 들어가서 신도 절차에 따라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잖습니까? 그게 신사참배가 아니고 뭘니까? 학교 당국과 협의가 된 것인가요?

경찰 그것까지는 난 모른다. 모두 여기서 대기한다.

임인식 (옆에 있는 학생에게) 북간도 애들 데려와.

학생 한 명이 학생들에게로 가서 문익환과 운동주를 찾아 데리고 온다.

학생 1 (임인식에게 다가와서) 다른 학교도 축하연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여기로 데려 왔다고 합니다. 송의중학교와 의명중학교도 이미 절을 했다는데요.

임인식 학교와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학생들을 신사참배 하게 하려는 거지! 야비한 놈들!

문익환과 윤동주가 와서 임인식 옆에 선다.

임인식 익환이, 이거 신사참배 맞지? 아무리 축하인사라고 해도 말이야.

문익환 반인반신이라고 주장하는 천황에게 종교적 예를 갖추는 것을 국가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 신사참배입니다.

임인식 여기 선생님들이 없으니, 목사 지망생에게라도 확인을 해야지. 동주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

윤동주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임인식 역시, 북간도 출신들은 확실하네. *(학생들에게)* 좋아. 일단 경찰 지시대로 움직여. 그리고 다음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알았지?

학생들 퍼지면서 서로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경찰이 학생들 앞에 서서 명령한다.

경찰 송실학교 학생들, 주목! 이제 신사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면 신관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송실학교 일동 차렷! 앞으로 갔! 하나! 둘!...

학생들, 발을 맞춰 앞으로 간다.

임인식 (큰 소리로) 송실학교, 제자리 섰!

학생들 모두 제자리에 선다.

임인식 뒤로 돌아.

학생들 모두 뒤로 돈다. 경찰들, 당황한다.

임인식 모두... 해산!

학생들이 기쁨에 넘쳐서 모두 대열에서 이탈한다. 무대는 혼란에 빠진다. 경찰들을 학생들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학생들을 즐겁게 무대 밖으로 나간다.

무대 한쪽에서 평안남도 도지사 야스다케 나오가 등장한다. 달아나는 학생들을 바라본다.

무대 양쪽에서 윤산온과 일본 관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등장한다.

일본관리 송실학교 교사들의 태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오.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거요.

윤산온 이 사건의 책임은 도청당국에 있습니다. 축하연이라고 해 놓고서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일본관리 사건의 파장을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평양 시내 학생들 모두가 그 광경을 봤을 뿐더러, 평양 시 전체에 소문이 다 퍼졌소. 이렇게 대놓고 당국 정책에 반항하는 거요?

윤산온 반항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일본관리 험한 꼴을 당해야 정신 차리겠소?

윤산온 지금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야스다케가 등장한다.

야스다케 (일본관리에게) 말이 통하는 분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윤산온에게) 안 그렇습니까? 대화로 해결합니다.

윤산온 우리는 저희 생각을 이미 말했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스다케 윤산온 교장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건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빠지십시오.

윤산온 이건 종교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야스다케 그 종교와 교육이 보호하려는 게 무엇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요?

야스다케가 의자에 앉는다. 윤산온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일종의 모욕을 주는 행동이다.

야스다케 미스타 조지 맥균. 이제 조선은 없소. 여기는 일본이요. 당신이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도 조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협조하십시오.

윤산온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는 할 수 없습니다.

야스다케 이건 국가 행사요. 천황폐하는 이제 조선인들에게도 천황폐하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 예를 표하라는 겁니다. 국가의 수장에게 예를 표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윤산온 다른 신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이. 눈점을 바꾼다.) 좋습니다. 야스다케 평안남도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천황은 현존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입니까?

야스다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윤산온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다시 묻겠습니다. 천황 폐하는 현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입니까?

일본관리 천황폐하를 모욕하지 마시오.

윤산온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 주십시오, 일본이 문명국이라면 말입니다.

야스다케 (혈박하듯이) 윤산온 교장. 복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요. 마지막 경고요.

긴장의 음악과 함께 야스다케와 일본관리가 나간다. 무대 한쪽에 무장을 한 경찰이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의자를 가지고 등장하여, 승실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이어서 야스다케가 등장하고, 일본 관리가 야스다케에게 성명서를 전해준다. 야스다케가 성명서를 읽을 때, 마치 방송을 하는 것처럼 소리가 울린다.

야스다케 나, 야스다케 평안남도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시행령을 공포한다. 평안남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게 신년부터 신사참배를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 신사참배는 대일본제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영령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그들의 혼이 우리를 계속 보호해주기를 기원하여, 대동아제국 건설이 하루 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시이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모든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

령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에게는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이다.

야스다케가 나가면 임인식이 무대 앞으로 나온다.

임인식 (주위 학생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걱정할 것 없어. 이 송실학교에선 신사참배란 없어.
학생 2 정말이요?
임인식 윤산온 교장 선생님께서 거부하셨어. 그리고 송의중학교와 의명중학교도 거부했대. 교장선생님들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어.
학생들 (소리친다.) 와우. / 잘 됐다. / 당연하지. / 멋진데..... 등등.
임인식 그러니까, 걱정들 말라고. 여기 송실학교야. (과장하면서 장난치듯이) 민족정신의 산실이라구.
학생들 (소리친다.)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 교장선생님 만세... 등등.

학생들이 무대 밖으로 뛰어 나간다. 문익환이 윤동주에게 다가온다.

문익환 역시 우리학교야. 안 그래?
윤동주 그럼! 기독교 학교가 신사참배를 할 수는 없지. 우리들의 자존심도 있고.
문익환 끝까지 버티어낼 수 있을까?
윤동주 (걱정스러워 하며) 글썄... 어떻게든 끝까지 싸워보아야지.
문익환 이럴 때 몽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윤동주 (몽규를 생각하고서) 맞아. 개가 있었으면 좀 더 힘이 됐을 텐데...
문익환 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지다니 말이야. 넌 몽규와 사촌이니까, 사정을 좀 더 알 거 아니야? 몽규 집에도 소식이 전혀 없대?
윤동주 없대. 아무 소식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신대. 뭔가를 숨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문익환 정말 알다가도 모를 놈이야.
윤동주 누가 아니래? 별 일 없어야 하는데.
문익환 너무 걱정 말자. 개는 잘 지낼 거야. 어디를 가셔도 말이야. 외향적이고, 말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윤동주 항상 떠들썩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녀석이니까.
문익환 맞아. 어디선가 몽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둘이 서로를 보고 웃는다. 문익환의 시선이 윤동주가 들고 있는 책에 멈춘다.

문익환 그런데... (윤동주의 손에서 책을 낚아챈다.) 평양 시내 전체가 이번 일로 시끌시끌한데 너는 또 뭘 읽고 계시나? (책을 보고) 그렇지! 당연히 시집이지. (표지를 읽으면서) 정지용?
윤동주 아주 대단해! 들어봐. <별똥>이라는 시야. (정지용 시를 외운다.)

별똥이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인젠 다 자랐소.

정말 대단하지?

문익환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

윤동주 그래. 단순해. 그런데 핵심이 있어. 단순함속에 있는 진리라고 할까? 과장된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없어. 그래서 힘이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야.

문익환 그 정도로 좋으니?

윤동주 그럼! 떨어지는 낙엽보고 눈물짓는 그런 나약한 시가 아니야. 모든 감정과 생각이 절제되어 표현되어 있어. 맑은 결정체 같은 거지.

문익환 그건 원래 내가 쓰고 싶어 하던 시잖아.

윤동주 맞아. 정지용 시인은 정말 최고야. 쉬우면서도 심오할 수 있고,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문익환 듣자하니, 앞으로 네 시가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

윤동주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문익환 넌 평소에는 그렇게 말이 없다가, 시 얘기만 나오면 항상 말이 많아져. (*의미심장하게*) 동주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도대체 시가 너에게 뭐 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니?

윤동주 글썸... (*잠시 생각하다가*) 난 시가 위로라고 생각해.

문익환 위로?

윤동주 응, 슬픔이나 고통,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거지. 단순히 눈물이나 닦아주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는 위로. 그런 거 아닐까?

문익환 (*뭇 말린다는 식으로*) 몽상가! 넌 구제불능 몽상가야.

윤동주 (*즐겁게*) 그럴지도 모르지.

둘이 서로를 보며 웃는다. 이때 학생 몇 명이 뛰어 들어온다.

임인식 애들아 큰일 났어. 의명중학교 교장이 배신했대.

윤동주 뭐라고? 배신했다고?

학생 1 자기네 학교는 신사참배를 한다고 했다. 승의학교도 굴복했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추방당하실거래.

무대에 야스다케가 나타나 명령서를 읽는다. 학생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야스다케 승실중학교 교장인 조지 맥균. 조선어이름으로 윤산온을 오늘부로 교장직에서 직위해제 한다. 더 이상 교장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조선경찰국은 윤산온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즉 본국으로의 귀환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며, 조선 땅에 계속 머무를 경우 그에게 닥칠 신변상의 위협에 대하여 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이상.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저항한다. 윤산온이 일본 경찰과 함께 나온다. 학생들이 일본 경찰에게 대든다. 잠시 동안의 혼란.

학생들 (전면으로 나와 외친다.) 우리는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교장 선생님의 파면 조치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 송실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 교장 선생님의 파면 조치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경찰들 (학생들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어로 험한 소리를 한다.) 물러나라. / 개 같은 놈들. / 죽고 싶나... 등등

윤산은 나, 윤산은은 이제 정든 한국 땅을 떠납니다. 다음에 임명되는 교장선생님이 송실학원의 정신을 이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비록 조선 땅을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이 땅과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학생들 우리는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교장 선생님의 파면 조치를 철회하라. / 송실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윤산은이 학생들의 시위를 뒤로 하고, 경찰과 함께 무대를 떠난다.

임인식 나는 새 교장을 인정할 수 없어.

학생 1 당연하지.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사람이 새 교장으로 올 텐데!

학생 2 그럼 이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문익환 아니! 난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임인식 그럼 너도?

문익환이 동의를 표시로 고개를 끄덕인다. 학생 모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

학생 2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임인식 여기 있으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야.

학생 1 그래.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자퇴하는 수밖에 없어.

학생 2 결국 이렇게 되는군.

문익환 다른 방법이 없잖아? (윤동주를 바라보며) 동주, 너는 어떻게 할래?

윤동주 정말 아쉽다.

임인식 여기를 그만 두는 게 그렇게 아쉬워? 그럼 여기 남아. 강요하는 게 아니야.

윤동주 단순히 여기를 그만 두는 게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이 땅 어디 한곳에서도 우리말을 마음껏 배울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 학교는 그럴 수 있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문익환에게) 나도 자퇴하겠어.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어.

임인식 젠장. (사이.) 그럼 이제 우리 다 이대로 헤어지는 건가?

학생 1 그래. 그게 정말 슬프다.

학생 2 서로 많이 그리웠잖아, 그치?

윤동주 그래, 많이 그리울 거야.

문익환 (동주에게) 동주야. 우리한테 네가 쓴 시 하나만 읽어 다오.

임인식 그거 좋은 생각이다.

윤동주 하지만 웬지 사람들 앞에서 내 시를 읽는다는 게...

학생 1 뭐 어때? 다 친구들만 있는데...

윤동주 그래도...

임인식 제발 읽어줘. 우리들의 이별 선물로 말이야.

문익환 (아주 슬프게 애원하듯이) 동주야, 읽어 줘. 네가 그랬지? 시인은 이럴 때를 위해 있

는 거라고.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을 지도 몰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로 떠나야 하는 순간이야. (사이) 시를 읽어 줘. 지금이야말로 시가 필요해.

음악소리가 시작된다. 윤동주가 시를 낭송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느린 동작으로 서로에게 이별을 고한다. 그리고 모두 다른 방향으로 퇴장한다. 시가 끝날 때쯤은 문익환과 윤동주만 무대 위에 남는다.

윤동주 종달새는 이른 봄날
 질디 진 거리의 뒷골목이
 싫더라.
 명랑한 봄하늘,
 가벼운 두 나래를 펴서
 요염한 봄노래가
 좋더라,
 그러나,
 오늘도 구멍 뚫린 구두를 끌고,
 홀렁홀렁 뒷거리 길로
 고기새끼 같은 나는 해매나니,
 나래와 노래가 없음인가
 가슴이 답답하구나. (종달새)

야스다케 조선총독부 평안남도 도지사인 야스다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938년 3월 16일부로 승실학교를 폐교 조치한다. 이상.

음악과 함께 암전. 한동안 암흑이 유지된다. 윤동주의 일생 중 한 장인 청소년기가 끝난 것이다.

제 2 장

〈1937년 겨울. 북간도 용정〉 이란 슬라이드가 영사된다. 무대 한쪽에서 문익환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 송몽규가 나온다. 둘은 무대에서 아주 반갑게 서로를 안는다.

송몽규 익환아, 문익환.
문익환 몽규야...
송몽규 익환아...
문익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송몽규 길어. 사연이 길다.
문익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송몽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문익환 동네에 소문이 짝 퍼졌어. 사실이야?
송몽규 뭐? 범죄자가 됐다는 거?

문익환 넌 농담이 나오니?
송몽규 (우스갯소리처럼)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런데 동주는?

그 말쯤 윤동주가 무대 한쪽으로 나와 송몽규의 뒷모습을 본다. 문익환이 동주 쪽을 가리킨다.
송몽규가 뒤로 돌아 동주를 본다.

윤동주 몽규야!
송몽규 동주야!

둘이 다가와서 서로를 포옹한다.

윤동주 너 잘 지냈니?
송몽규 (장난스럽게) 내가 잘 지냈겠어?
윤동주 애긴 다 들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오래됐다고 느껴지지?
문익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럴 거야.
윤동주 경찰에 끌려가서 많이 힘들었지?
송몽규 (과장하며 농담 식으로) 아아...아주 죽는 줄 알았다. (둘이 놀라는 것을 보고서) 농담
이야. 조금 그랬지 뭐!
윤동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문익환 소문은 무성한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얘기 좀 해 봐.
송몽규 내가 사라진 때 기억하지? 사실은 중국 남경에 낙양군관학교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 원래는 중국 군사교육기관이었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손을 써서 몰래 조선
인을 교육시켰어. 거기에 들어간 거야.
윤동주 군사학교에 들어갔었다고? 독립군 군사학교?
송몽규 그래. 그런데 나만 거기에 갈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 우리학교 출신 황국주, 이인용,
라사행 선배도 왔어.
문익환 라사행 선배도 거기 갔다고?
송몽규 그래, 너처럼 목사님 된다고 하던 선배가 거기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여
간 다음에 일이 틀어진 거야. 일본 측이 조선인에게 군사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 결국 중국 측이 물러서는 바람에, 재정지원이 끊기고, 교육생
들은 흩어지게 됐지. 일본 경찰의 사냥이 시작됐고, 모두 쫓기는 신세가 된 거야.
문익환 그런데 어떻게 일본 측에서 알게 된 거지?
송몽규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어. 글썄 우리를 남경까지 연결해준 이웅이란 새끼가 일본 측
첩자였던 거야.
문익환 정말? 그걸 가만 놔뒀어.
송몽규 가만뒀겠어? 우리 학교 출신 중 한 명이 죽여 버렸어. 그 암살사건 덕에 우리는 아주
위험한 놈들로 찍힌 거야. 난 일본 경찰에 요시찰 인물로 낙인찍힌 거고. (농담조로)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나 만나는 거 조심해야 한다.
윤동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하나도 겁 안 나.

세 명이 모두 웃는다.

송몽규 아,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광명 중학교 다닌다며?
문익환 누가 아니라? 송실학교에서 신사참배 안 하려고 자퇴를 하고서 여기 와서 친일계 학교에 다녀야 한다니...

송몽규 그 심정 이해한다.
윤동주 몽규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송몽규 난 연희전문학교에 갈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문익환 나는 일본으로 가게 될 것 같아. 거기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송몽규 일본으로 간다구? 일본으로?
문익환 어떡하겠어? 더 좋은 학교들이 거기에 있는데...
윤동주 그건 맞는 말이야. 조선 땅에는 저들이 만든 경성제국대학을 빼고는 모두다 전문학교로 낮춰 놨잖아. 일본에서 좋은 것 많이 배워서 여기서 쓰면 되지 뭐.

송몽규 동주, 넌?
윤동주 마음 같아서 나도 너처럼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가고 싶다.
송몽규 마음 같아서라니?
문익환 동주 아버지께서 반대하시거든.
송몽규 그거 큰 문제인데. 동주 넌 아버지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잖아. 대체 왜 반대하시는 거지?
윤동주 (송몽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연희전문 문과에 갈 거야.

윤영석이 무대 다른 쪽에 서있다.

윤영석 안 돼! 문과는 절대로 안 된다. 의과에 가는 것은 몰라도 문과는 절대로 안 돼. 너 고생하려고 작정을 했냐? 문과 나와서 뭐하게? 글쟁이가 되려고? 안 돼. 입에 풀칠도 못한다. 나를 보라. 내가 젊었을 때 의과를 나왔다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다. 의과에 가, 의과에!

윤동주 아버지, 의과는 제 취향에 맞지 않아요. 전 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윤영석 취향은 변하는 거야. 문학이라고? 흥!
윤동주 문학 공부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죠?
윤영석 밥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배가 고프니까!
윤동주 저는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윤영석 관심이 없어? 배부른 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의사들이 사기 치면서 돈을 버냐? 좋은 일 하면서 풍족하게 살라는데 왜 안 하겠다는 거야?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윤동주 (반론을 제기하며) 그럼 의사가 마음의 병도 고칩니까? 깊은 절망감이나 상처받은 자 존심 같은 것들요?
윤영석 그럼 정신과 의사를 해! 왜 하필 문학이야?
윤동주 아버지!
윤영석 넌 문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문학 해봤어. 순 말장난이야.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하나? 문학? 절대 안 돼!
윤동주 (큰 소리로) 아버지! 저에게는 연전에 가서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영석 난 안 된다고 했다.

윤동주 아버지, 이 땅에서 조선어를 조선 문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이제 연희 전문 학교 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연전만 조선어 문학을 가르치고 연전에서만 조선어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최현배, 김윤경, 백낙준, 이양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거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조선 땅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는 곳이 하나도 없게 될 걸요! 우리나라의 말이 사라질 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말과 글이 사라지면 민족의 정신도 사라지는 겁니다. 정신이 사라지면 남는 게 뭐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나라를 빼앗긴지 스무 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렵게 우리말과 글을 지켜왔습니다. 그 수모와 핍박을 견디면서요. 그 말과 글을 지키는 일을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정신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연전에 가겠습니다. (퇴장)

윤영석이 뛰쳐나가는 윤동주를 보고 서 있다. 이어서 할아버지인 윤하현이 등장한다.

윤영석 (뛰어나가는 윤동주에게) 동주야! 동주야!
윤하현 (들어오면서 헛기침을 한다.) 흐흠...
윤영석 (윤하현을 보면서) 다 개 잘되라고 이러는 겁니다.
김 용 여보, 애가 오늘도 아침도 안 먹고 나갔어요. 이리다 사람 잡겠어요.
윤영석 배가 고프면 다 먹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모른 척 해요.
김 용 어떻게 모른 척 해요? 애가 점점 여위어 가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윤영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윤하현 애비야. 언제 동주가 네 뜻을 거역한 적이 있냐?
윤영석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런지 최고집이에요.
윤하현 그 녀석 결심이 대단하더구나. 그만큼 꼭 거기를 가고 싶은 게지.
윤영석 문학이니 예술이니 이런 것 하면 다 굶어요. 지금이야 젊어서 그런 게 하고 싶은 거지, 나중에 보면 다 부질 없는 짓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도 동주 녀석 좀 설득해 주세요.
윤하현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내가 동주 녀석에게 설득 당했다.
윤영석 뭐라구요? 아버지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손자가 저처럼 되기를 바라세요?
윤하현 너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야. 너무 자학하지 마라.
윤영석 제가 문학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을 일으켰을 거예요.
윤하현 글썸다. 과연 그렇게 됐을까?
윤영석 아니, 아버지.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세요? 왜 동주처럼 제 속을 굶으세요?
윤하현 (침착하게) 애비야. 그 녀석 뜻이 기특하지 않니? 조선 문학을 지키고 싶다는 게.
윤영석 (이번에는 진지하게) 아버님, 그게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아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 말이예요?
윤하현 (힘을 주면서)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해주자꾸나.

사이. 윤영석도 설득이 되었다.

윤영석 서울로 시험을 보러가야 하는데,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잖습니까?
김 용 그것도 다 계획해 놨더라구요. 같은 중학교 나왔던 라사행이라는 선배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거기서 신세를 지기로 벌써 얘기해놨다고 하더라구요.

윤하현 (과장하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윤영석 정말 굳은 결심을 한 모양이군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 고집이 있는지?
윤하현 (자기가 속 썩은 것을 생각하며) 그야 너 닮아서 그렇지!

송몽규와 문익환이 운동주를 끌고 들어온다.

윤영석 좋다. 할아버지가 저러시니 나도 허락은 하겠다. 하지만 이것만 약속해라. 문과를 나온 다음에 꼭 고등고시를 보는 거다. 알겠니? 고등고시를 보는 거야?
윤동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윤하현 애, 동주야!
윤동주 예, 할아버지!
윤하현 장가를 일찍 가면 공부를 못하게 되니, 절대 일찍 장가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고등고시를 보는 게다.
윤동주 (기뻐서 가족들에게 마구 인사한다.)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정이 올라온다.)

윤동주와 김용이 감동을 나눈다. 송몽규와 문익환도 함께 즐거워한다.

윤하현 저렇게 좋아하다니. 벌써 대학생이 다 된 것 같구나.
윤동주 그래. 이제 연전으로 가는 거야! 연전으로!

대학교에서 들림직한 음악소리가 나면서 암전이 된다. 이어서 장면이 전환된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1937년 12월 13일 난징대학살〉, 〈1937년 8월~1938년 5월 수양동우회와 흥업구락부 관계자 체포 및 탄압. 기독교계열 민족운동 단체 와해〉, 〈1938년 3월 10일 안창호 별세〉, 〈1938 3월 중국 국민군 타이얼좡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첫 승리〉라는 자막이 순서대로 영사된다. 자료 화면도 함께 영사된다.

제 3 장

〈1938년 봄. 서울 연희전문학교〉

윤동주, 송몽규, 강처중, 라사행, 정병욱이 농구를 하면서 나온다.

무대 오른쪽 무대 안에 농구골대가 있다고 설정하고 연기를 한다. 송몽규와 강처중이 슛을 쏜다. 무대 밖으로 슛을 쏘면 바로 공이 무대 안으로 튀어 들어온다. 정병욱이 멀리 있는 윤동주에게 공을 패스한다. 윤동주가 3점 슛을 쏘듯이 슛을 쏜다. 공이 무대 밖으로 나가고 이전과 달리 바로 튀어 나오지 않는다. 슛이 들어간 것이다. 공이 무대바닥으로 굴러 나온다. 윤동주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굴러가는 공을 바라본다. 슛이 쉽게 들어가서 허탈한 표정이다.

송몽규 내가 뭐래? 재 하고 농구하면 안 된다니까! 선수하고 일반인하고 경기하는 꼴이야.
라사행 역시 농구 선수 출신이 다르네.
강처중 이렇게 잘 하는지 몰랐는데...
라사행 그런데 몽규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는 거야? 말도 잘하고 매번 앞에 나서면서 운동

은 완전히 엉망이야.

강처중 정말 완전 반대야. 외향적인 몽규는 운동에 썬병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동주는 운동만 하면 날아다니고...

송몽규 (숫 쓰는 흥내를 내며)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윤동주 (숫 쓰는 흥내를 내며)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송몽규 들었어? 재가 이제 사람을 놀리기까지 한다니까!

라사행 정말 많이 변했네,

윤동주 무슨 말씀요.

송몽규 (모든 사람에게) 좋아. 그럼 시작해 볼까. 누가 먼저 할래?

정병욱 제가 먼저 할게요. “집은 장미와 꿀벌로 가득하리라/오후 만찬의 종소리 들리고/투명한 보석 빛깔 포도 알이/느린 그늘 아래 햇살을 받으며 잠든 듯 하리라.”

윤동주 “아 그곳에서 그대를 마음껏 사랑 하리! 나는 그대에게 바치리.”

라사행 이런!

윤동주 “온통 스물 네 살의 마음을, 그리고 내 조소적인 정신과/프라이드와 백장미의 나의 시를/하지만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하고,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란시스 잠의 〈장미로 가득한 집〉

송몽규 이것 봐, 병욱이. 동주가 프란시스 잠 도사인 거 몰랐어? 같은 하숙집을 쓴다고 짜고 하는 것 같아!

정병욱 깜박 잊었어요, 선배님. 내 이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진 격이네...

라사행 하여간 프란시스 잠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는 안 돼! 그건 동주가 모두 다 외우고 있으니까.

강처중 이번엔 내가 할게. 아무도 모를 걸! 간다. “시의 젓가슴에 안겨/젖을 빨던 입이”

정병욱 (시의 과감한 표현에 놀라며) 와우! 대단한 시네요!

강처중 (손으로 진정을 시키며) “깜박 놀람에 엄습되어/입술을 댄다/따스한 정 흘러나오던/오, 내 어머니 지성이여/젖이 말라도 가만히 있는/이 무슨 소홀함인가!

라사행 모르겠는데?

정병욱 저도 모르겠어요.

강처중 “그대 품안에서/하얀 밧줄로 짓 감기면/재물로 가득 찬 그대 가슴의/바다 물결은 곧장 나를 어르곤 했노라.” 동주도 모르겠지? 가장 최근에 나온 시거든.

윤동주 “그대의 침침한 하늘에 잡혀/그대의 아름다움 위에 기진하면/어두움을 삼키면서도/빛이 나를 침범함을 느꼈노라!” 폴 발레리의 〈시〉.

송몽규 너 언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까지 섭렵한 거야?

윤동주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유행이잖아.

송몽규 그렇지. 최신 유행하는 시라면 동주가 모를 리 없지. 동주가 다른 유행에도 민감하면 자유연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사행 맞아, 동주는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인데. 시 들려주면서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윤동주 (수줍게) 무슨 그런 소리를...

송몽규 이거 안 되겠다. 1등은 동주로 정하고 다음 순위를 정하자. 이번에는 동주가 시를 읊고 우리가 맞추자고. (윤동주에게) 좀 쉬운 걸로 내. 알았지?

윤동주 모두가 아는 사람 걸로 할 게. 음... (잠시 생각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라사행 난 모르겠는데? 더 들려줘.
윤동주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끝. 〈새로운 길〉

송몽규 처음 듣는 시인데?
정병욱 저도요.
강처중 아까 “문들레”라는 말이 나왔으니 우리나라 시 같은데... 현대시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간결하고... 그렇다면, 정지용!
윤동주 아니, 윤동주!
송몽규 뭐? 네 시란 말이야?
윤동주 응. 내가 그랬잖아. 모두 아는 사람이라고.
라사행 동주야, 너 유머가 많이 늘었어!
강처중 시 실력도 많이 늘었고.

모두 웃는다.

라사행 동주야, 너 연전에 와서 영감이 마구 솟아나나 봐.
윤동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라사행 이 학교에선 어떤 수업이 제일 인기야?
윤동주, 송몽규, 강처중, 정병욱 최현배 선생님!
강처중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우리말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감동 그 자체예요. 그 강의 하나만으로도 연전에 온 이유가 충분하다니까요.
송몽규 맞아. 게다가 학교건물에 새겨져 있는 태극 마크나 캠퍼스 곳곳에 피어있는 무궁화들... 일본당국은 우리가 눈에 가시 같겠지만, 우리에게엔 낙원이 따로 없다니까요!
라사행 정말 부럽구만!
송몽규 그 덕에 우리 동주도 많이 감상적이 됐지?
윤동주 (발끈 하면서) 내가 감상적이라고?
송몽규 응. 넌 항상 하늘과 별, 이런 것을 보면서 시를 짓곤 하잖아. 모든 시인들이 환상적인 밤과 별을 노래하면서 항상 사랑을 노래하곤 하지.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윤동주 (단호하게) 아니! 그렇지 않아.
송몽규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그렇게 하늘과 별, 바람 같은 것에 집착하는데?
윤동주 난 그런 것들을 감상적으로 보지 않아. 나에게 하늘과 별은 다른 의미가 있어. 그냥 별이 빛나고, 사랑이 움트고, 술에 정신은 몽롱하고... 난 그런 하늘과 별을 노래하는 게 아냐. 나에게 그것들은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야. 나에게 하늘과 별은 생명과 같은 거야. (하늘을 가리키며) 저 하늘을 봐. 저 푸른 하늘 속에 별들이 있어.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 낮에는 해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야. 밝은 낮에는 별이 필요 없어.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말이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되면,

무대가 어두워진다.

윤동주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가야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되면, 저 밤하늘을 보는 거야.

별들이 나타난다. 객석까지 별이 늘어져 있다.

윤동주 그러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별이 반짝이고 있어. 우리가 존재하기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전부터 있던 그 별들이 우리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이야. 우린 보통 죽은 영혼들이 별이 된다고 믿지. 맞아! 그 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우주와 인류의 전 역사와 하나가 되는 거지. 그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무수한 소리가 들려오고, 무수한 이미지들이 떠올라. 그러면 난 내 무거운 옷을 걸듯이 별에게 희망을 걸고, 내 추억을 회상하고, 내 마음을 비쳐보지. 그리고 내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그 광대한 공간 속에서 난 발가벗은 내 모습으로 내 깊은 어느 곳에 자라나는 내 시들을 탄생시키는 거야.

음악이 시작되면서, 시인이 시를 읽어 가면서 극장 전체가 점차 별로 가득 찬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쓰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우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뜬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 <별 헤는 밤>

음악의 종료와 함께 서서히 암전.

제 4 장

긴장된 음악이 흐른다. 무대에는 위쪽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쪽에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당국이고, 그 아래쪽에는 각자 자신의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있다.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경직된 군인들처럼 보인다.

다음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대사를 할 때, <1938년 3월, 3차 조선교육령 개정>, <1939년 10월, 친일문학단체 '조선문인협회' 발족>이란 설명이 영사된다. 자료 화면도 함께 영사된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는 다음과 같이 제3차 교육령을 개정 공포한다. 이번 교육령은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행될 것이다. 첫째, 조선 내 모든 학교는 본토 일본과 같은 명칭으로 통일한다. 동시에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일본인이 사립학교 교장은 물론 교무과장에 취임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내 모든 교육은 일본어로 진행되며, 조선어 사용은 금지 된다. 일본어가 국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편성되며 조선사는 일본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셋째, 학생들을 강인하고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신교육을 위한 수신과목, 일본사와 체육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더 이상의 사립학교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황국신민을 키워내는 것이다. 이상!

김동환 (작가 대표로 연설을 한다.) 우리 조선 문인들은 내선일체의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선문인협회를 설립한다. 초대 회장 이광수를 비롯해서 나 김동환과 주요한, 정인섭, 김억 등 거의 모든 조선 문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협회의 창립은 목적은 새로운 국민문학의 건설과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 인류는 유사 이래 국민생활을 떠나 생활한 일이 없고 문학도 국민생활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반도문단의 새로운 건설은 내선일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작가 단체 회원들이 박수를 칠 때, 김동환이 성명서를 일본관리에게 정중하게 바친다. 그들은 일본관리를 우러러 보며 관객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할 때, 일본군의 진격 사항이 화면에 영사된다. 스포츠 중계처럼 아주 감정적으로 보도를 한다.

기자단 현재 중국전선에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중국군을 섬멸하고 있다. 국민당 정부가 후퇴한 충칭을 대상으로 공습작전을 개시했다. / 일본군, 서주 점령 / 일본군, 우한 점령 / 일본군 무한 삼진 점령 / 현재 중국군은 중국 주요 도시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일본군은 육일승천의 기세로 연전연승하고 있다. 중일전쟁의 승리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자 (일본 관리에게 묻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산 호에서 소련과의 전투가 있었고, 일본군이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본경찰 그런 헛소문은 어디서 들었나?

기자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일본경찰이 고갯짓을 하자, 옆에 있는 두 명의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

다음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대사를 할 때, <1939년 11월, 창씨개명령 공포>와, <1938년 기독교 최대교파 장로교 신사참배 수용>이라는 설명이 영사된다. 자료 화면도 함께 영사된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40년 2월 11일부로 창씨개명을 시행한다. 조선인 모두 일본식 성과 이름을 신고한다. 앞으로는 신고 된 이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내선일체를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것이지 절대 강제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종교지도자 우리 기독교계는 지금까지의 지지부진한 행동을 반성합니다. 1936년에 감리교단이 선언한 신사참배는 종교행사가 아니라 국가행사라는 해석, 1938년 장로교단이 같은 해석을 하였음에도 일선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음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더 철저히 전 교회와 교인이 신사참배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교단과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나 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지도자와 일군의 종교인들이 일본 관리들에게 선언서를 바친다. 그들도 일본관리를 보며 관객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할 때, 일본군의 진격 사항이 화면에 영사된다. 스포츠 중계처럼 아주 감정적으로 보도를 한다.

<1939년 9월 1일, 세계 2차 대전 발발>, <1940년 5월 10일, 독일 프랑크 침공>, <1940년 6월

10일, 이탈리아 프랑스 침공), <1940년 6월 14일, 독일군 파리 입성> <1940년 6월 22일, 프랑스 항복>, <1940년 9월 27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동맹체결>, <9월 일본 베트남 북부에 진주>, <1940년 9월 17일, 임시정부 중경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설치, 광복군 창설> 등이 대사에 맞추어 영사된다. 자료 화면도 함께 영사된다.

기자단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독일이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폴란드에 진군함으로써 유럽전쟁이 시작되었다. / 독일군은 프랑스를 공격하였고, 파죽지세로 돌격 중이다. 동맹국인 이탈리아도 프랑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진격을 시작했다. / 독일군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입성했으며, 프랑스는 항복했다. / 대일본제국은 유럽의 국경선을 다시 긋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체결하였다. / 일본군은 항복한 프랑스의 영토인 베트남에 진주하며 일본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 현재 창씨개명은 70%에 이르는 전국민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기자 (일본 관리에게 묻는다.) 조선의 경우, 가문 어른이 창씨를 하면 모두 창씨를 해야 합니다. 호적을 일치시켜야 하니까요. 또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창씨를 하지 않으면 국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말하는 창씨개명이 실제로는 강제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경찰이 손가락을 하나 들자, 옆에 있는 두 명의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 이전보다 과격하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바라본다.

북소리가 난다. 전쟁을 연상시키는 북소리이다. 화면에는 일본이 아시아를 정복하는 선전영상이 영사된다.

조선총독부 유럽은 이제 일본 동맹국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배한다. 유럽보다 더 넓은 아시아는 현재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제국은 중국대륙으로의 진출은 물론 동남아시아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전까지 아시아를 지배하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구세력은 지금 아시아에서 물러나고 있다. 아시아의 주인은 우리 일본제국이 될 것이다. 누가 우리 일본제국을 멈출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어색하고 기계적으로 박수를 친다. 이어서 신호에 따라 모두 조선총독부 쪽으로 고개를 숙인다. 일본제국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서 영상만 잠시 계속된다. 윤동주의 하숙집으로 장면이 연결. 방에는 정병욱이 홀로 있다. 송몽규가 들어온다.

송몽규 병욱이!

정병욱 오셨어요, 선배님!

송몽규 (안을 살펴보다가) 또 나갔어?

정병욱 예, 아침부터 나가셨어요.

송몽규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정병욱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하세요.

송몽규 그 녀석이 항상 그래. 말하기 싫으면 그냥 웃기만 한다니까! 저번 주에는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어! 알고 있어?

정병욱 아침에 일찍 나가시기에, 교회 가시는 줄 알았죠.

송몽규 안 나타났어. 요즘 동주 녀석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나타나야지 말야!

정병욱 더 큰 문제는 시를 도무지 쓰지 못하고 계세요.
송몽규 아직도?
정병욱 한숨만 쉬시고, 몇 자 꼬적이고, 그러다가 그냥 원고지만 꾸겨버리세요.
송몽규 (혼자 말처럼)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동주가 시를 못 쓴다? 개는 언제나 꼬박꼬박 써댔다구. 시간만 나면 시를 쓰던 앤데.... 정말 걱정이네.
정병욱 뭐라고 말을 걸기도 그렇고 해서, 저도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송몽규 병욱이가 고생을 하네.
정병욱 무슨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송몽규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내가 다 고마워. 동주가 잘 견뎌낼 거야.
정병욱 그러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송몽규 그 얘기 좀 또 해줘?
정병욱 무슨 얘지요?
송몽규 (다 알지 않냐는 투로) 아, 그 얘기 있잖아.
정병욱 벌써 몇 번을 들으시구선...
송몽규 난 그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
정병욱 (옛날이야기 하듯이) 연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그 날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투고한 글이 그날 조간신문에 실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동주 형이 제 기숙사 방에 불쑥 나타나신 거예요. 말 한번 나눈 적이 없는데요. 손에는 제 글이 실린 신문을 들고 계셨죠. 그러더니 저에게 “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병욱, 송몽규 나와 같이 산보라도 나가실까요?

둘이 웃는다.

송몽규 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개만의 멋이 있다니까...
정병욱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신문에 실린 동주 형 시를 읽고 흠모하고 있었거든요. 입학하자마자 동기생 장덕순이 용정 출신이라기에 동주 형에 대해서 물어봤었죠. 동주 형에 대한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송몽규 개는 참 멋있어.
정병욱 친구분들이 오시면 차에다가 작은 다과라도 항상 대접하시더라고요. 본인만의 예의 기준이 있는 게 저로서는 신기할 뿐입니다.
송몽규 가까운 친구 사인인데도 항상 그런 예의를 지킨다니까.

정병욱이 들어오는 운동주를 발견한다. 송몽규도 운동주를 발견한다. 정병욱이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간다.

송몽규 (눈치를 살피며) 잘 있었어?
윤동주 응. 그럭저럭....
송몽규 요즘 바쁜 것 같은데?
윤동주 아니, 그냥 여기저기 좀 다니느라고. (화제를 피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차 좀 끌일게.
송몽규 (윤동주의 움직임에 막으면서 심각하게) 동주야, 너 어디 아프니? 너 요즘 좀 이상해?
윤동주 이상한 게 어디 나쁜이니?
송몽규 지난주에는 교회에도 안 나왔던데? (사이.) 병욱이 말로는 아직도 시를 쓰지 않고 있

다며? 언제부터 쓰지 않은 거지?

윤동주

작년 9월부터.

송몽규

그럼 1년도 넘었네! 왜?

윤동주

(정면으로 송몽규를 보며) 써서 뭐해? 그따위 시 나부랭이!

송몽규

뭐라구? 그게 무슨 말이야?

윤동주

(말을 회피하며) 교장이 바뀔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우리가 다니는 학교마다 교장이 잘려나가네...

송몽규

나도 들었어. 친일파로 바뀔 거라더라, 윤치호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야, 비위 좀 맞출 줄 알잖아. (윤동주의 눈치를 보다가) 그나마나 넌 왜 시를 안 쓰는데?

윤동주

(말을 피하며) 이제 영어로 된 책들도 수입 금지된대. 일본을 나쁘게 말한 버트란드 러셀이나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은 가르치지 못하게 됐다더라고.

송몽규

봄 학기에 폐강된 조선어 강좌는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될 거라더라. 일본학으로 바뀐다지? 수업도 일본어로만 한다고 하고. 강압정책을 넘어서 이제는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겉으로는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윤동주

학교 교기도 바꾸라고 그랬대. 교가도 부르지 말고, 응원가 가사까지 바꾸라고 하고...

송몽규

(화제를 바꾼다.) 너 왜 시를 안 쓰는데? 교회는 왜 멀리하고?

윤동주

(다른 말을 한다.) 서대문 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도서관을 뒤져서 책들을 다 압수해 갔대. 교수들도 조사를 받고 몇 명은 사표를 내게 될 거라고 해.

송몽규

(강하게) 동주야. 너 왜 그래? 왜 내 말을 자꾸 돌리려고만 하는 거니?

둘이 잠시 동안 말이 없다.

윤동주

성경 예레미야서 12장을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 “어찌하여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안락을 누리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나무처럼 심어 뿌리가 박히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내놓으셨는지 알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시련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원수의 손에 자신의 민족을 넘겨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짓밟게 했다는 거지.

송몽규

우리가 그렇다는 거니?

윤동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난 지금까지 기독교 신자였어. 하지만 요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정말로!

송몽규

이 시련은 꼭 극복될 거야.

윤동주

(송몽규에게 따지듯이 날카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 별로 시련을 주는 것이고, 악한 자들의 길이 그렇게 형통한 거니?

송몽규

그들도 영원하진 못해.

윤동주

김동환, 노천명, 모운숙, 주요한, 김동인, 채만식, 정비석, 함세덕, 이광수, 최남선 까지. 아, 아니다 이광수가 아니다. 가야마 미쓰오다. 이광수는 조선과 함께 죽었으니깐!

송몽규

그만 하자!

윤동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인들이야. 그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 조선어 대신 일본어를 쓰자고 한다더라.

송몽규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한용운, 현진건.... 그래도 몇 명은 돼.

둘이 한동안 말이 없다.

윤동주 (허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이름도 빼앗겼어. 이제 무엇을 더 빼앗아 갈까? 우리 모두 이름 없는 사람들이야. 안 그래? 누가 나를 동주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내 모든 것이 담겨있어. 그 글자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거야. 일본식으로 해 볼까?

송몽규 (말을 막듯이) 동주야!

윤동주 도오쥬우가 되겠지. 거기엔 아무 것도 없어. 말이 없어진다는 것. 글이 없어진다는 것. 내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야.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라구. 껍데기, 그림자, 허수아비.... 그것만 남는 거야.

송몽규 그만하자.

윤동주 (몽규를 바라보면서 절망적으로) 시를 쓸 수가 없어. 시를 쓸 수가 없어. 시가 나오지 않아. (가슴을 가리키며) 몽규야, 여기가 무너져서 시가 나오지 않아.

송몽규가 윤동주를 안는다. 둘이 울음을 참는다. 그 때, 정병욱이 뛰어 들어온다.

정병욱 선배님들. 큰 일 났어요.

송몽규 무슨 일인데?

정병욱 감리교 신학교가 폐교됐답니다.

송몽규 뭐라구?

정병욱 감신교가 오늘부로 폐교 됐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일부가 서대문 경찰서에 검속됐어요.

송몽규 그럼 라사행이는?

정병욱 경찰서에 검속되어 있답니다.

송몽규 군사교육 받은 경력이 있으니 당연히 요시찰 인물로 찍혔겠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구속되는 것인데... 하여간 경찰서로 가보자. (가려다가 움직이지 않는 윤동주를 발견하고) 같이 안가겠어?

윤동주가 정병욱이 들어온 반대방향으로 뛰어 나간다.

송몽규 (나가는 윤동주를 부르며) 동주야!

송몽규, 윤동주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장면이 바뀐다. 타악기 소리와 함께, 무대뒤쪽으로 체포당해서 고초를 당하는 장면이 그림자로 보인다.

동시에 무대 앞쪽은 교회당으로 바뀐다. 그 안으로 윤동주가 뛰어 들어온다.

윤동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언제 이게 다 끝나는 것 입니까? 과연 끝은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며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구요? 아주

간단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永遠)히 슬플 것이요. <팔복>

(결심을 한 듯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비록 이름 없는 시인이고, 재주라곤 영성한 시를 만드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금 펜을 잡고 끈임 없이 쓸 겁니다. 내 피와 영혼으로 약속합니다. 언젠가 제가 자신을 희생해야 할 날이 찾아 온다면, 제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면... 그 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뛰어 들겠습니다. 위로만으로는 부족한 세상입니다. (선언하듯이) 이제 내 시는 나의 무기입니다.

타악기 소리가 주가 된 음악 소리와 라디오 방송 등이 어지럽게 터져 나온다. 다음 장면은 스크린에는 다큐멘터리 자료가 영사되고, 무대에서는 어용 문학인들의 강연과 시낭송이 펼쳐지고, 한 쪽에선 무대를 떠돌며 자신의 시를 써내려 가는 운동주가 서로 겹치며 진행된다.

이 장면은 마치 시(詩)들 간의 전쟁과 같다. 영상에서는 당시의 자료 화면이 나온다. 친일 문학인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시를 읽으면 운동주는 그들에게 도전하듯이 시를 만들어낸다. 운동주는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시를 써내려 간다. 운동주의 이미지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이다. 시련을 겪는 민족을 바라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했던 그들의 모습이다. 대사와 각종장면들은 동시에 등장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지만, 대사의 기만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친일문학인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들려도 좋을 것이다. 낭랑하고 맑은 운동주의 목소리와는 대조가 된다.

<1941년 3월, 조선총독부 조선어 교육 전면금지> 글자가 스크린에 영사된다.

이광수 내가 이광수란 이름을 버리고, 가야마 미쓰오라는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동기는 천황 어명(天皇御命)과 같은 식으로 읽는 이름을 가지자는 것이다. 우리가 천황의 적자요 일본 나라의 신민이라는 자각과 감격을 가진다면 조선 사람은 더 많은 진보와 행복을 얻을 것이다.

운동주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 있소. ...(중략)...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무서운 시간>

〈1941년 4월, 일본군 베트남 남부로 진군〉 글자가 스크린에 영사된다.

노천명 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라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저 영미를 치는 마당에 영문(營門)으로 들리는 우렁찬 나팔소리, 오랜만에 이 강산 골자구니와 구석구석을 흥분 속에 흔드네.

윤동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 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눈을 감고 간다〉

〈1941년, 6월 독일 독소불가침조약 파기, 소련 침공〉 글자가 스크린에 영사된다.

최남선 대동아전은 역사적 사명의 수행일새 여기 성공이 약속되며, 대동아전은 진리와 함께 수행함일새 여기 승리가 확보된다. 천하에 진리와 함께 있는 자보다 더 강할 이가 없다. 만방에 본연한 지위를 주고 만민에게 정당한 발전을 약속하는 진리가 그것이다. 대동아전이 그것이다.

윤동주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바람이 불어〉

〈1941년, 8월 미국 대일석유 수출 금지〉 글자가 스크린에 영사된다.

주요한 역사가야 붓을 버려라. 네 붓이 너무 무질렀다. 역사가야 책을 던져라. 네 책이 너무 낡았다. 새 붓을 예비하여라. 새 책을 펼쳐 놓아라. 새 먹을 갈아서 새로운 시대의 첫 페이지를 적어라. 그곳에 승리의 영광을 기록하라. 대동아전쟁의 역사적 승리를 찬양하라. 우리의 일본 승리를 노래하라.

윤동주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우에
습한 간을 퍼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아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푸로메디어쓰 불쌍한 푸로메디어쓰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푸로메디어쓰. <간>

<1941년 12월 7일> 글자가 스크린에 영사된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폭격을 받는 소리가 난다. 무대 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허공을 바라본다. 라디오 방송에서 “41년 12월 진주만 기습”에 대한 방송이 나오고, 화면에 태평양 전쟁 발발의 자료가 나온다. <일본,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 공습. 태평양 전쟁 시작.> 글자가 영사된다. 이어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진다. 운동주는 그대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조명 서서히 암전.

제 5 장

<1941년. 12월 서울> 글자가 스크린에 영사된다.

운동주의 하숙집. 운동주와 정병욱이 앉아 있다.

정병욱 이제 다 정리됐네요.
운동주 내 집은 강제중이가 와서 가져갈 거야. 돌아올 때까지 보관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정병욱 이렇게 연희전문학교 생활을 끝내시는군요.
운동주 전쟁으로 졸업이 3개월 앞당겨졌지만, 연전을 떠날 때가 되긴 했지.
정병욱 일본 학교는 정하셨어요?
운동주 몇 곳을 알아보고 있어. 난 조금 자유스러운 학풍이 있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꾸 제국대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학교를 권하셔.
정병욱 그래야, 출세하기 좋으니까요.
운동주 그렇지.
정병욱 일본에 간다...
운동주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지.
정병욱 일본에는 아는 분이 계시나요?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울 텐데...
운동주 고향 친구인 문익환이 그곳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 백인준이도 2년 전에 일본으로 갔고 도쿄에 있다고 해. 릿교대학에 다니고 있다더라고. 연전 선배와 친구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거야. 또 몽규도 함께 가니까.
정병욱 많이들 가 계시네요.
운동주 조선땅에서는 배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더 공부를 하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정병욱 전공은 정하셨어요?
운동주 영문학을 공부할 생각이야. 프랑스 문학도 같이 배우면서.
정병욱 송몽규 선배님도요?
운동주 개는 문학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역사를 전공하겠대.
정병욱 웬지 어울리는 것 같네요.

윤동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병욱 언제쯤 떠나실 예정이시죠?
윤동주 내년 삼월쯤.
정병욱 (슬프게) 그럼 조만간 하셔야겠네요.
윤동주 그렇지...

둘이 말이 없다.

정병욱 어렵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윤동주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
정병욱 창씨개명을 해야 유학을 갈 수 있다니 정말 참담하네요.
윤동주 내 마음도 그래... 참 자네한테 줄게 하나 있어.

윤동주, 무엇인가를 꺼내 정병욱에게 준다.

정병욱 이게 뭐죠?
윤동주 내 시집이야.
윤동주 원래는 졸업하는 기념으로 시집을 낼까 했는데, 출판할 돈이 없어서 내가 세 부를 직접 써서 만들었어. 한 권은 이양하 교수님을 드렸고, 한 권은 내가 갖고, 한 권을 병욱이한테 주는 거야.
정병욱 출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양하 교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윤동주 출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
정병욱 왜요?
윤동주 몇 개의 시가 일본 관현의 검열을 통과 못할 거라서. “십자가”,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 같은 시는 분명 시비를 걸 거라는 거야. 출판도 못하고 요시찰인물로 찍힐 거라고 말리셨어. 나중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출판하라고 하시더라구.
정병욱 정말 아쉽네요. 졸업 기념으로 냈으면 좋았을 텐데...
윤동주 어쨌든 세 부는 만들었잖아!
정병욱 이렇게 귀한 시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윤동주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한테는 조출한 선물이지.
정병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렇게 지은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윤동주 시인은 시로써 말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거든.
정병욱 (시집을 펴고 읽는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앞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둘이 말이 없다

정병욱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윤동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저 자신한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배의 기적 소리가 낮게 들리면서 조명이 바뀐다. 장소가 항구로 바뀐다. “빨리 승선하십시오!” 라는 안내가 계속해서 들린다. 윤동주와 정병욱이 작별인사를 한다. 정병욱은 퇴장.

송몽규가 여행차림으로 무대에 등장한다. 윤동주도 여행가방을 들고 송몽규와 합류한다.

윤동주 방으로 강처중이 들어온다. 윤동주가 떠난 방에 윤동주의 짐이 놓여 있다. 그 짐을 챙기다가 책상 위에 놓인 원고 하나를 발견한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발견하고 종이를 집어 든다. 시가 적혀 있다.

무대 중앙에서 만난 윤동주와 송몽규는 그들이 갈 방향을 한 번 쳐다보고 서로 마주 본다.

송몽규 준비됐지?

윤동주 가자!

송몽규 그래!

윤동주와 송몽규가 승선을 하러 간다. 일본으로 떠나는 다른 유학생들도 등장한다.

슬픈 음악이 연주된다. 강처중이 윤동주의 <참회록>을 읽기 시작한다.

강처중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안내원 빨리 승선 하십시오! 승선표. (승선표를 받는다.) 이름?

송몽규 (무의식적으로) 송몽규, 아니.... 구니무라 무게이!

안내원 (명단에서 확인하고는) 다음! (윤동주에게) 승선표. (승선표를 받는다.) 이름?

윤동주 히라누마 도오쥬우!

강처중 -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든가
 내일이나 모래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든가

송몽규 (서로를 바라보며) 히라누마 도오쥬우...

윤동주 구니무라 무게이.

송몽규 구니무라 무게이.

윤동주 히라누마 도오쥬우..

윤동주와 송몽규가 자신들이 떠나려는 조선 땅을 바라본다. 다른 유학생들도 배위에서 떨어지는 조선땅을 바라본다. 모두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진다.

강처중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참회록>

배의 기적이 울린다. 영상으로 일본의 모습이 점점 다가온다. 점점 일본의 본토에서 벌어지는 광란에 가까운 전쟁 준비 모습이 보인다. 군가가 들리고 군가 사이로 군인들이 행진하는 소리가 들린다. 화면은 아시아 전역으로 진군하는 일본군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주와 송몽규가 무대 중앙 뒤에 서서 무대 앞 중앙으로 걸어 나온다. 일본에 도착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악수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간다. 한 사람은 도쿄로, 한 사람은 교토로 가는 것이다.

세트는 일본을 상징하는 장식들이 등장한다. 동시에 전쟁을 느끼게 하는 포스터와 플래카드 등으로 장식해도 좋다. 그런 광기 속에 운동주와 송몽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5장은 운동주의 조선에서의 삶을 그린 마지막 장면이다. 강제중이 시를 읽은 공간(운동주의 하숙집 위치)는 계속 조선 친구들의 지역으로 사용한다.

조명 서서히 암전.

제 6 장

<1942년 5월, 일본 도쿄>란 글자가 영사된다. 다음 장면은 부분별로 빠르게 넘어간다.

1. 도쿄(東京)에 있는 한 공원

도쿄의 어느 한 공원이다. 그러나 일본군가가 멀리서 들려온다. 일본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 군복을 입은 일본 군인들이 보인다.

운동주와 박춘혜, 박춘혜 오빠가 들어온다. 박춘혜 오빠는 운동주와 박춘혜의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고, 두 사람은 어색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

박춘혜 오빠 거기 둘이 서 봐요. (사이.) 조금만 더 붙어서요. 조금만 더 붙으라니까. (사진기에서 눈을 떼고) 사진 처음 찍어보나! (손짓을 하며) 좀 다정하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둘이 가까이 서는 것을 보고) 그렇지. 하나, 둘, 셋!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박춘혜 오빠는 넉살 좋게 이야기 한다.

박춘혜 오빠 사실 오늘 윤형과 같이 나오자는 것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춘혜 아이디어였어요.

박춘혜 (깜짝 놀라면서) 오빠는!

박춘혜 오빠 윤형이 매일 하숙집에 박혀서 공부만 한다고, 오늘은 해 구경 좀 시켜 주자고 합디다.

박춘혜 오빠, 그만해!

운동주 이거, 춘혜 씨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박근혜 오빠 그래, 여기 동경 생활이 어떻습니까? 조금 살벌하지요?

윤동주 어디나 전쟁, 전쟁, 전쟁뿐이더군요.

박근혜 오빠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특히 윤형이 다니는 릿쿄(立教)대학은 완전 군대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던데...

윤동주 예, 좀 자유스러운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와보니 영 딴 판이군요. 아직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그러실 거예요. 동주 오빠는 그런 것과는 잘 안 맞잖아요.

박근혜 오빠 윤형이야 워낙 암전한 성격이라서...

박근혜 오빠, 동주 오빠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암전한 사람만은 아니예요.

박근혜 오빠 뭐라구?

박근혜 동주 오빠가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다는 것 모르셨죠? 농구 선수로도 활약했대요.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박근혜 오빠 정말이에요, 윤형?

윤동주 예,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박근혜 거 봐요. 보기는 암전해도, 거친 부분도 있다니깐요.

박근혜 오빠 윤형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사이.)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아니?

박근혜 (놀라서) 아니, 그냥...

박근혜 오빠 (대충 눈치를 채고) 오라, 그런 거였나?

박근혜 아니야. 괜히 넘겨짚지 마!

박근혜 오빠 알았다. 아무래도 사진기 필름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데... 나, 필름 좀 사러 갔다 올게. (장난치듯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필름가게가 여기서 아주 멀거든. 필름가게에 필름이 없으면 필름 공장까지 가야할 거야. 윤 형, 나 안 오면 춘혜 좀 부탁해요.

박근혜 오빠, 무대 밖으로 나간다.

박근혜 오빠!

박근혜 오빠 (다시 들어와서) 윤 형, 나 말어요. 내 동생 같은 여자만 있으면 바로 결혼했을 겁니다.

박근혜 오빠, 다시 무대 밖으로 나간다.

박근혜 오빠! (진정해서 윤동주에게) 막내 오빠는 항상 저래요? 객쩍은 소리만 하고.....

윤동주 저는 그래서 좋은데요.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어서요. 고향에서도 저랬나요?

박근혜 마을에서 유명한 장난꾸러기였어요.

둘이 서먹서먹하게 벤치에 앉는다. 그때 군복을 군인들이 도열해서 구보로 뛰어간다. 사람들이 피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례를 한다.

박근혜 일본 전체가 군대 같아요.

사이.

윤동주 집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자가 유학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박춘혜 가고 싶죠, 많아요. 하지만 오빠와 같이 있어서 위안이 되요.
 윤동주 함경북도 온성이면 저의 집인 용정과도 별로 멀지 않아요.
 박춘혜 알아요. 별로 멀지 않죠.

사이. 말을 잊지 못한다.

윤동주 어때요? 성악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으세요?
 박춘혜 예,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어떠세요. 시는 많이 쓰세요?
 윤동주 참 이상하죠? 세상은 점점 더 끔찍해져 가는데, 시는 계속 쓰여요. 끊임없이요.
 박춘혜 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윤동주 그런가요?
 박춘혜 정이 많으니까, 아픔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윤동주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박춘혜 한번 듣고 싶어요, 직접 쓰신 시를요.
 윤동주 제가 다음에 한번 갖다 드릴게요.
 박춘혜 아뇨. 전 직접 읽어 주는 것을 듣고 싶어요. 시인이 직접 읽는 것을요.
 윤동주 (기분이 좋아서) 그럼, 제가 제 시를 읽어 드리면, 춘혜 씨는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시겠어요? 성악가가 직접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요.
 박춘혜 (웃음을 가득 띠고서) 좋아요. (고개를 기쁜 듯이 끄덕인다.)

둘은 벤치에서 일어나 무대를 걸어 나가기 시작한다. 박춘혜와 윤동주가 무대에서 사라질 때, 다른 편에서 그들을 보는 춘혜 오빠가 등장한다. 둘을 몰래 보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을 보며 좋아한다. 두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지 갑자기 얼굴을 숨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스처어를 하며 무대를 나간다.

2. 송몽규와 윤동주의 연락

툭 조명 속에 송몽규가 나타나 윤동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다.

송몽규 동주. 도쿄는 어때? 나는 여기 교토에서 잘 지내고 있어. 연전 선배들과 동기들이 있어서 빨리 적응했어. 네가 교토에 오면 좋아할 거야. 도시가 참 아름다워. 네가 좋아하는 정지용 선생 시에 나오는 가모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있어.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어.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에 있을 때보다 국제정세를 더 잘 알게 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하다 보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윤동주 나도 우리 동기생 백인준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 멀지 않은 곳에 당숙도 살고 계셔서 외롭지는 않아. 인준이와 레코드를 들으면서 가끔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해. 여기 도쿄는 화려해. 하지만 화려한 도시 풍경 사이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신문에는 온통 승전소식뿐이야. 그 승전소식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 그런데 모두 즐거워하고 있어. 그 승리

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야.

- 송몽규** 연전 동창인 장성언이 최근 교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 줬어.
- 장성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교토에서 공부하는 조선인 학생들이 체포되었어. 공장에서 파업을 주도한 조선인 노동자들도 체포되고. 그런데 학생들의 체포 이유는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아. 유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대충 감을 잡고 있지.
- 송몽규** 일본이 태평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갑기만 해.
- 윤동주** 도쿄는 그곳보다 더 호전적이고 노골적이야. 여기 대학들에는 교련이란 과목이 있어서, 군인들이 대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키고 있어. 내가 다니고 있는 릿교대학 교련 담당 군인은 정말 최악이야.
- 백인준** 이 사람은 아주 저질이야. 이전에 있었던 메이지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그렇게 괴롭혔대. 특히 기독교를 아주 혐오해.
- 이지마** 난 예수가 싫다. 예수를 따르는 놈들도 싫다. 기독교는 서양종교이고 우리는 지금 서양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신자는 모두 일단 스파이로 의심해야 한다. 기독교 학교는 항상 감시하고 대학 자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백인준** 그가 다음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은 문학부 학생들이야.
- 이지마** 문학을 공부하는 인간들을 대부분 나약한 놈들이다. 쓸 데 없는 글이나 쓰고 앉아서 책이나 보는 놈들이지. 문학하는 놈들이 체육을 제일 못하고, 교련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는다. 그런 놈들은 일본제국에 전혀 쓸모가 없다. 모두 인간개조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문학부를 문약부로 부르겠다. 나약한 인간들의 집합소인 문약부.
- 윤동주** 이것이 소위 문명화된 일본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야. 화려한 문명의 포장을 벗기면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 있어.
- 송몽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봐두자. 새로운 정보도 모으고, 다른 나라의 상황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거야. 다음에 만날 때 요즘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인도 독립에 대한 이야기 들려줄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민족 독립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가고 있어. 희망이 꺼지지 않게 노력하는 거지.
- 윤동주** 인도라...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사로지나 나이두의 나라. 인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하네. 나도 할 얘기가 쌓여 있어. 여긴 더 어둡고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것 같아. 나도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찾고 있어.

3. 도쿄(東京)에 있는 공원

박춘혜가 벤치에 앉아 종이를 손에 들고 들어온다. 반대편에서 윤동주가 들어온다. 그 당시에 들음직한 음악이 아주 약하게 들린다.

- 박춘혜**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 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봄〉

정말 좋네요! 직접 읽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윤동주 제가 워낙 습기가 없어서요...

박춘혜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지요. 어떤 영감이 떠오르나요?

윤동주 글썄요. 머릿속에서 떠오른다고보다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길거리를 걷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풍경에서 시가 시작되죠. 때로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다 보면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 단어들을 떠오르고, 그렇게 우연처럼 만난 영감에서 시가 나오게 되요.

박춘혜 (말을 생각하면서) 우연처럼 만나게 된다.

윤동주 그런데 그 우연을 잘 생각해보면,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섭리가 있는 것처럼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박춘혜 정말 신비롭네요. 그 다음은요?

윤동주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시를 써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기도 하구요. 잠시 기다리기도 하고 더 좋은 표현을 찾아 나서기도 하면서 시를 쓰죠.

박춘혜 곰곰이 생각하면서 쓴다. 대단하네요. 마치 새롭게 만난 사람을 알아가는 것 같네요.

윤동주 그러고 보니 비슷하네요.

박춘혜 이 시는 이전에 보여주셨던 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전에 보여준 시들과는 다르게 이 시는 밝아요.

윤동주 그런가요?

박춘혜 그 시들도 좋았지만, 이 시는 왠지 따뜻해요. 봄이라는 제목처럼요. 봄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쓰셨나 봐요?

윤동주 그랬죠.

박춘혜 제 이름 춘혜의 춘이 봄춘자인데...

윤동주 예?

박춘혜 우연이겠죠? 봄을 생각하며 쓴 시의 제목이 봄이고, 제 이름의 한 글자가 봄이라는 것이요.

윤동주 (당황하면서) 예. 우연입니다.

박춘혜 좀 전에 모든 일에는 섭리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구요.

윤동주 제가 그랬나요?

박춘혜 예. 어떤 섭리가 있고,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 이름과 이 시의 제목 사이예요?

윤동주 춘혜 씨. 춘혜 씨 오빠만 짓궂은 게 아니네요.

박춘혜 말 돌리지 마세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동주가 대답을 하려는 순간. 비행기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무대로 들어온다. 모두 하늘을 바라 본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이어서 대공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다.

박춘혜 저게 뭐죠?

윤동주 군용기인데 이렇게 도시 가깝게 나는 것을 처음 보네요.

박춘혜 보통 보던 비행기 보다 아주 큰데요?

윤동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저건 폭격기예요.
박근혜 폭격기요? 도쿄에 웬 폭격기가 날아다니죠? 그리고 이 사이렌은 또 뭐죠?
윤동주 설마...

이어서 폭탄이 퍼지는 소리가 난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무대는 혼란에 빠진다. 미공군의 돌리틀 공습이 시작된 것이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 사람들 비명, 사이렌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박근혜 이게 뭐죠?
윤동주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박근혜 누가 폭탄을 떨어뜨리죠?
윤동주 미군일텐데...
박근혜 미군이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또 다시 난다. 무대는 더 혼란에 빠진다. 군인들이 뛰어다닌다.

윤동주 (다급하게 손을 내밀면서) 춘혜 씨. 이리 와요!

박근혜는 조금 망설이다가 윤동주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이 무대 밖으로 피신한다.

4. 폭격 후 반응 장면

몽타주 장면. <돌리틀 폭격>에 대한 반응이다.

일본대본영 어제 도쿄, 요코하마, 요코스카, 가와사키, 나고야, 고베, 옷카이치에 미공군의 무모한 공격이 있었다. 이 공격은 일본제국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아홉 대의 미국 폭격기 모두 일본군에 의하여 격추되었다. 일본제국군대는 일본제국의 방어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다시는 이런 무모한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전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며, 적들이 맞이할 것은 치욕스러운 파멸뿐이다.

송몽규 동주, 직접 봤어? 일본 당국의 발표가 맞아?

윤동주 직접 봤어. 그리고 일본 당국의 발표는 소문과는 달라. 미국 폭격기들은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어. 폭격의 피해는 크지 않았어. 하지만 폭탄이 일본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어. 대본영의 말하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송몽규 미국이 외교적 협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한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윤동주 우리가 희망하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송몽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징조인데...

윤동주 그렇지. 미군이 주요 도시와 해군기지만 골라서 폭격을 했어. 일본군부가 긴장을 한 것이 확실해. 내부 단속을 시작한 것 같아. 혹시 모를 스파이를 적발한다는 명목 하에 외국인들과 우리 조선인들을 의심하고 있어. 릿교 대학 같은 기독교 학교에는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당국에 비협조적인 교수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어.

송몽규 위험신호가 느껴진 거지.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고,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은 패배하게 되어있어. 전쟁 전부터 그런 분석이 있었지. 문제는 언제 승패의 추가 기우느냐겠지?

윤동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언제쯤 올지 알게 될 거야.

조선으로 전환. 강제중과 라사행, 정병욱이 윤동주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온다.

정병욱 폭격이요? 그 먼 곳에 있는 미군이 일본 본토를 폭격했다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강처중 믿기지 않겠지만 동주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대.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자세히 소식을 전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거겠지.
라사행 이것으로 증거가 됐어. 일본이 전하무적이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다 헛소리라는 것이.
강처중 그렇죠. 그런데 동주는 이런 위험한 소식을 전하면서도 시 한 편을 쓰셔서 보냈어요.
정병욱 시는 계속 쓰시나 보네요. 시를 계속 쓰시면 지금 잘 지낸다는 거죠.
강처중 맞아. 동주 시는 보관하고, 편지 내용은 소각해야 해. 가지고 있다고 들키면 큰일 날 거야.
라사행 그럴 거야.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강처중 징병제 소식은 어때?
정병욱 곧 공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강처중 여기나 거기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5. 도쿄(東京)에 있는 윤동주의 하숙집

문익환이 윤동주의 하숙집을 방문한다.

윤동주 어서 와.
문익환 드디어 동주 하숙집에 와보네. 네 하숙집 첫 방문인데 작별 방문이 되었어.
윤동주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래도 외지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다. 숭실학교 이후 처음인가?
문익환 그러네... 정말 오랜만이다.
윤동주 건강은?
문익환 의사말로는 완치되었대. 금강산이 좋기는 좋은가봐. 죽을병이라던 폐결핵도 완치가 되니 말이야.
윤동주 네 소식 듣고 몽규하고 걱정 많이 했어.
문익환 정말 죽다 살아난 거지. 그런 만큼 열심히 살기로 했어.
윤동주 잘 생각했다.
문익환 넌 떠날 준비는 다 됐고?
윤동주 응. 도쿄도 좋은데 학교가 견딜 수 없을 정도야.
문익환 얘기는 많이 들었어.
윤동주 모든 학교에 교련 수업이 있는데, 기독교 대학에는 더 심하게 교육을 진행해서 참을 수가 없어.
문익환 교련 거부도 했다며!
윤동주 조선 유학생들 중 몇 명이 했지. 나도 교련복을 입지 않고 교련수업에 들어갔었어. 그 다음부터 계속 괴롭히는데... 그렇게 치졸할 수가 없더라고. 다른 교수들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야. 군인들이 옛날 사무라이들처럼 활개치고 있어. 칼 대신 총을 들고 말 이야.

문익환 내가 요양을 가기 전과 도쿄의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

윤동주 도쿄는 거대한 전쟁 공장 같아. 비행기, 군함, 탱크, 총 심지어 사람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일본 전체가 죽음에 중독된 것 같은데, 여기 도쿄가 가장 심해.

문익환 그야, 제국의 심장부니까!

윤동주 그 제국이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문제겠지.

문익환 다른 친구들도, 걱정이 태산 같아. 일본학생들은 벌써 군대에 자원입대를 하고 있어. 소문으로는 우리 조선학생들한테까지 동원령이 내릴 거라고들 해.

윤동주 넌 어떻게 할 거니?

문익환 난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 만약 징집령이 내리면 만주로 갈 생각이야.

윤동주 만주로?

문익환 응!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윤동주 일단 교토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정하려고 해. 거기는 조금 자유롭다니까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여기는 다른 일을 할 여지가 없어.

문익환 다른 일?

윤동주 (무엇인가를 암시하듯이) 이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문익환 그래서 교토로 가려고?

윤동주 거기서는 가능할 것 같아. 조선유학생도 많으니까.

문익환 우리끼리 모이기에는 교토가 낫지. 너에겐 거기가 더 좋을 거야. 몽규도 있으니까. 너와 몽규는 함께 있어야 해.

윤동주 내가 몽규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문익환 응, 한 사람은 행동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생각을 해야 하니까. 한 사람은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다른 한 사람은 혼을 불어넣어야 하잖아. 두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해. 안 그래? 여기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윤동주 미련이라...

문익환 아차.... 없는 게 아니지...

두 사람 모두 겸연쩍게 웃는다. 둘은 지금 처지가 비슷하다.

윤동주 너의 코스모스 아가씨는 어떻게 됐어? 좀 상황이 나아졌어?

문익환 아니, 그쪽 집안에서 아직까지 반대가 심해.

윤동주 아직도?

문익환 처음부터 반대가 있었는데, 내가 병치레를 하는 바람에 더 심해졌어. 폐병환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거지.

윤동주 병은 다 나았잖아?

문익환 그냥 내가 싫으니까, 모든 것에 이유를 만드는 거지. 그런 너는? 봄 같은 아가씨와는 어떻게 됐어?

윤동주 거의 끝났다고 할까...

문익환 왜?

윤동주 여름방학에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결혼상대자를 골라놓으셨대. 거절할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약혼은 하고 유학을 마칠 때까지 결혼을 겨우 미루었나봐.

문익환 나보다 더 큰 일인데?

윤동주 그러게 말이야.

문익환 그래서 포기한 거야?
 윤동주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네.
 문익환 (잠시 생각을 하다가) 동주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혹시 모르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윤동주 그럴까?
 문익환 세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움직인다잖아.
 윤동주 벌써 목사님 다 되셨네. 그럼, 일단 믿어 볼까?
 문익환 우리가 믿는 것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두 개인가?
 윤동주 그렇지.
 문익환 꼭 이루어질 거야.
 윤동주 그래. 그렇게 믿자. 우리가 믿는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강처중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대로 들어온다. 윤동주의 시와 편지다.

강처중 도쿄를 떠나게 되었어. 지난 번 편지처럼 이곳에 머문다는 것은 시간낭비야. 일본을 위해 군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또한 여기서 경험할 것, 봐야할 것을 모두 본 것 같아. 다음 편지는 교토에서 보낼 게. 그리고 지난번에 보낸 시 <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정확했어. 맞아. 이번 봄은 이전의 봄과는 완전히 달랐어.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어. 도쿄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 이만 줄일게...

강처중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편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를 추측하며 퇴장.

6. 도쿄(東京)에 있는 기차역

윤동주가 도쿄를 떠난다. 박춘혜와 박춘혜 오빠가 마중을 나왔다.

박춘혜 오빠 윤 형, 잘 가요. 내가 좀 잘했어야 하는데...
 윤동주 무슨 말씀을... 박 형이 항상 잘 해줬는데요. 항상 맛있는 고향음식을 대접해주셨는데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가버리는 것 같아, 제가 미안합니다.
 박춘혜 오빠 우리 또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고향에 한 번 놀러 와요.
 윤동주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혜 오빠 몸조심하세요,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윤동주 박 형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박춘혜 오빠가 뒤로 빠진다. 윤동주와 박춘혜가 남았다.

박춘혜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고 하셨죠? 거기에는 섭리가 있다고요. 그 말을 믿을 게요. 그 말을 믿어도 되겠죠?
 윤동주 춘혜 씨, 저도 그 말을 믿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알려주세요.
 박춘혜 그렇게요. 그리고 부탁 하나 할래요.

윤동주 무슨...
 박춘혜 봄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시를 써 주세요. 봄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윤동주 그러겠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박춘혜 또 봐요.
 윤동주 그래요. 또 봐요. 시를 가지고 갈게요.
 박춘혜 (손을 내밀며) 약속하신 거예요.
 윤동주 (손을 잡고) 예, 약속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기차의 기적소리. 윤동주, 돌아선다. 무대 왼쪽으로 나간다. 박춘혜, 눈물이 터진다. 박춘혜 오빠가 들어와서 박춘혜를 데리고 무대 오른쪽으로 나간다.

강처중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혼자 말처럼 되뇌다.) 난 믿어왔어. 나라는 멸망해 사라져도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말과 글을 지키면 민족도 지킬 수 있다고 말야. 난 미래를 위하여 시들을 쓴다고 생각했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슬픔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어. 난 시대를 증언하고... 하지만 지금 나는 묻고 있어? 과연 내가 그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까? (사이.) 바로 이게 내 대답이다.

그리고 그는 무대 중앙에서 무대 위쪽으로 걸어 들어간다. 마치 결전을 위해 들어가는 모습이다. 다음 장으로 장면전환. 영상으로 전환한다.

제 7 장

무대 스크린에서는 태평양 전쟁에 대한 내용이 영사된다. 당시 전황을 알려주는 영상들이다. 이 영상이 상영되면서 무대 양쪽 끝에 사무실 테이블과 의자가 들어온다. 이곳은 특별고등경찰사무실들을 상징한다. 나중에 이 테이블과 의자는 취조실과 재판정 의자로 사용된다.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세트를 위치에 갖다놓으면서 형사실을 만든다. 동시에 연기를 시작한다.

영상의 내용의 첫 번째는 일본해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했다는 사실이다. 자막 <6월, 미드웨이 해전. 일본해군의 주력항공모함 4척 격침. 일본 해군의 몰락>이 영사된다. 두 번째는 당시 일본이 점령하거 있던 지역 지도가 나타나고, 자막 <7월, 일본대본영, 해군력의 붕괴로 남태평양 진공작전 중지>란 설명이 영사된다. 다음은 자료 영상과 함께 자막으로 <8월, 유럽전선의 향방을 가를 스탈린그라드 전투시작>, <8월, 일본군이 점령했던 과달카날 섬에 미군 상륙, 전투 시작> 설명이 영사된다. 마지막으로 자료화면과 함께 <8월 연희전문학교 총독부에 접수>, <10월, 조선 어학회 사건> 자막이 영사된다. 일본의 몰락이 시작되면서 조선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을 알려주는 설명이다. 자료 화면과 함께 영사된다.

<1942년 10월, 교토> 자막이 영사된다. 이어지는 일본 장면은 모두 교토이다.

1. 교토(京都)의 특고 사무실

교토에 있는 특별고등경찰 사무실이다.

특고형사 최근 중요한 변동 상황이 발생해 보고 드립니다. 요시찰인물로 감시 중인 구니무라 무게이 조선이름 송몽규 신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고서장 구니무라 무게이라면 중학교 시절 낙양군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인물 말인가?

특고형사 맞습니다. 최근 구니무라의 고향친구인 히라누마 도주우 조선이름 윤동주가 교토로 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이후 도시샤 대학 영문학부로 편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도쿄 릿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특고서장 윤동주? 개인 신상은?

특고형사 구니무라와 비슷합니다. 명동촌 출신, 은진중학교와 송실학교 재학, 연희전문학교 문과 졸업.

특고서장 문제 학교만 다녔군. 그 외는...

특고형사 북간도 한인 지역에서 북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김약연의 외조카입니다. 그 지역 기독교계 지식인들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특고서장 모두 민족주의자 계열 사람들인가?

특고형사 더 다양합니다. 대학에서는 조선어 학자로 유명한 최현배 밑에서 배웠고 조선사 학자인 손진태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철학자인 박치우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실중학교 시절에 사제지간으로 만나서 연희전문 시절에도 친교를 유지한 듯 합니다.

특고서장 윤동주도 만주 용정 지역이 본거지인가?

특고형사 그렇습니다.

특고서장 전공분야는?

특고형사 적국의 학문인 영문학입니다. 릿교 대학에서도 그렇고 여기 도시샤 대학에서도 영문

학을 전공합니다.

특고서장 릿교 대학에서는 별일 없었나?

특고형사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교련 수업 때 교련복을 입지 않는 방식으로 군사훈련에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반전사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타카마츠 고지 교수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고서장 아주 골치 아픈 놈이군. 기타 사항은?

특고형사 시를 씁니다.

특고서장 뭐?

특고형사 두 사람을 미행한 담당자에 의하며 하라누마는 조선어로 시를 쓰고 조선어에 아주 능통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사와 조선 문화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인 영문학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학에도 조예가 깊으며, 인도 독립 운동가이자 시인인 나이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식민지 운동과 관련된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특고서장 이런 놈이 더 위험한 놈이야. 히라누마 도주우라고 했나?

특고형사 그렇습니다. 조선어 이름 운동주입니다.

특고서장 감시 단계를 상향하고, 두 사람 모두 밀착감시 하도록.

특고형사 (일본어로) 알겠습니다.

2. 송몽규의 자취방.

송몽규, 윤동주, 고희옥, 백인준, 장성언, 김주현, 송용한이다.

송몽규 일본의 몰락은 필연적이야. 일본은 분명히 그 길로 가고 있어.

고희옥 그렇게 일본이 연전연승하다가 이렇게 몰릴 수가 있는 건가요?

송몽규 장기전으로 가면 일본이 진다는 얘기가 전쟁 전부터 나왔어. 전쟁을 유지하려면 자원이 계속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전선은 길게 늘어지고, 그것을 다 지킬 여력이 일본에 없다는 거지.

장성언 게다가 계속 무기와 보급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 한계점에 도달한 거겠고.

김주현 결국 한 나라의 생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증명되고 있는 거야.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윤동주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그 자원에 인간도 포함된다는 거야.

송용한 동주 지적이 맞아. 병력이 점점 고갈되면 결국.....

모두 조용해진다.

백인준 언론의 과장이 심할수록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야. 들리는 말로는 미드웨이에서 큰 사달이 난 것 같아. 승전했으면 난리 났을 텐데 조용하잖아. 군항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 얘기로는 돌아온 함대에서 항공모함이 사라졌대.

장성언 숨기고 있지만 뭔가 큰 타격을 받은 거야.

송몽규 조선의 상황도 심상치 않아. 여름방학 때 조선에 가보니 연전이 총독부에 접수되었다고. 게다가 10월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해서 탄압을 강화하고 있어.

송용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윤동주 조선어학회에서는 조선어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 혐의로 모두 잡아넣은 것인데, 아직 조사 중이야. 사건의 결과로만 보면 위협을 하는 거지. 조선어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렇게 강하게 탄압해야 할 만큼 일본 전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아니겠어?

고희옥 합병된 지 32년이 지났는데도 조선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송몽규 우리 고희옥이는 조선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일반 학교에서 일본어로만 수업을 해서 조선어가 능통하지가 않아. 그래도 나중에 민족문화운동을 하고 싶어 해.

백인준 그러려면 우선 조선어부터 정확하게 배워야 할 거야. (윤동주를 가리키며) 여기 가장 좋은 조선어 선생이 있으니까 희옥이는 행운아네.

고희옥 (윤동주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윤동주 무슨 그런 말을. 나한테 조선어로 된 책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부터 읽기 시작하면 될 거예요. (장성언에게 책을 전해주며) 참, 저번에 말한 책 가져왔어.

장성언 (책을 받으면서) 아, 이 귀한 <조선사개론>!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었지?

송몽규 조심해야 돼.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체포 될 수도 있어 .

백인준 그 책 다 보고 나도 좀 빌려줘. 나중에 위해서 요약이라도 해놓게.

김주현 요약한 원고를 들키는 날엔 더 큰일이 날걸?

백인준 그럼 어쩐다. (농담조로) 다 외워야 하나?

송몽규 그러는 게 좋을 거다.

김주현 하여간 생각보다 더 조심해야 해.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학생과 노동자들이 만든 독립운동그룹이 체포되고 있어. 동경, 오사카, 규슈 지역 등등 일본 거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어.

고희옥 그 정도로 확산되고 있나요?

백인준 최근에도 동경에서도 민족주의그룹이 체포되었어. 조선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서도 파업을 하거나 모임을 조직하다 체포되고 있고.

송몽규 난 이게 새로운 세대의 독립운동라고 봐. 나라를 빼앗긴 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벌이는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

김주현 정확한 분석이야. 그래, 새로운 세대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방식의 독립운동.

송몽규 지금 아시아의 모든 나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식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송용한 몽규 너의 결론은?

송몽규 논리는 이래. 차별이 있는 한,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쳐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차별이 없어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애당초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종이나 이등시민으로 써먹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점령한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지금이 그 단계야.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지.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전면으로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망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기회를 노리다 다른 나라들과 합심해서 망하는 시간을 앞당기느냐겠지?

송용한 결론은 3번 같은데...

송몽규 속이 너무 보였나?

윤동주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

김주현 동주는 항상 핵심을 찌르네. 그렇지. 그때까지 뭘 해야 할지가 중요하지.

윤동주 그래서 문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송몽규 이 부분의 초안은 이미 윤곽이 잡혔어.

윤동주 일단 초안이야. (원고를 읽는다.) 우선 우린 조선사람이란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조선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여야 하며, 그 민족의식을 계몽하기 위하여 문화의 힘을 이용하여야 한다. 연극과 영화 등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장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문학작품, 특히 대중문학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감화력이 크고, 또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조선 독립의 선결 문제는 민족의 문화수준의 향상에 있고,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조선의 민족문화를 사수해야한다. (원고를 접으면서) 이 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갈 거야.

백인준 동주가 시만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이런 글도 잘 쓰는 구나!

김주현 역시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이라서 확실하군.

고희옥 저도 빨리 조선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네요.

송몽규 여기까지가 동주와 진행했던 내용이야. 이제 모임을 정리하자. 너무 길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백인준 (적은 것을 보면서) 오늘 얘기한 것을 정리하자면,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면밀히 조사한다.

송몽규 그건 내가 맡을 게. 이미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백인준 일본군 전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

김주현 그건 모두 함께 모은 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백인준 다른 나라의 독립방법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다.

장성언 그건 몽규와 주현이, 내가 할게. 여기 교토가 도쿄보다 안전할 거야. 교토제국대학 도서관에 자료가 더 많으니까.

백인준 다음에 문화부분은 동주가 맡고.

송몽규 도쿄에서 발표되는 정부 발표와 떠도는 소문은 인준이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 소식이 아주 중요해. 특히 지하에서 몰래 흐르는 얘기들 말이야.

백인준 그렇지.

송몽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신호는 간단해. 징집령이야. 조선인에게도 징집령이 내린다면, 그건 전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고 이길 승산이 없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 목숨과 연관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과 행동원칙들 필요할 거야. 마음 단단히 먹자! 모두 머리에 넣었지?

모두 잠시 동안 기억의 시간을 갖는다. 백인준, 자신이 썼던 메모에 불을 지른다. 증거를 소각하는 것이다.

3 몽타주

1943년 태평양 전쟁 전황이 화면에 영사된다. 대사에 맞는 자료화면과 설명이 영사된다.

일본대본영 1943년 2월 9일부로,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전투를 종료한다. 이미 섬에서의

후퇴를 완료했으며 이후 솔로몬 제도 전선에서 후퇴한다.

일본육군 중국전선에서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국민당정부의 수도인 충칭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함. 전선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병력에 있어 일본제국 군대에 큰 손실이 발생함.

일본장교 1943년 2월 2일, 유럽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스탈린그라드에서 추축국 독일군이 항복하였음. 장성 22명을 포함하여 9만 명이 넘는 병사가 항복. 소련군은 독일본토로 진격중임.

위의 발표가 진행될 때, 송몽규를 비롯해서 조선이 유학생들이 무대 곳곳에서 소식을 듣고 반응한다.

송몽규 유럽 전선이 끝나면, 소련군은 만주로 물러올 거야.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지. 솔로몬 제도에서 일본군이 패배했으니, 이제 미군은 밑에서부터 올라올 거야. 중국 전선에서는 성과 없는 공방전으로 인원과 물자가 계속 소모되고 있어. 하지만 일본은 미련을 버리지 못할 거야. 아마 최악의 선택을 하겠지.

무대 한쪽에서서 조선 반도 상황이 나온다. 강처중이 등장한다. 윤동주가 편지를 읽는다. 강처중이 보낸 편지를 읽는 것이다. 나중에 송몽규도 윤동주의 편지를 함께 읽는다.

조선총독부 1943년 3월 1일부로 조선인징병제를 공포한다. 조선인 징병은 8월 1일부터 실시될 것이다.

강처중 결국 동주 너의 예상대로 되었어. 징병제는 공포되었어. 곧 이어서 대학생들도 징집할 거래. 그 방법이 참으로 치졸하고 사악해. 우선 대학생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 냈어. 그리고 이제 징병제를 실시한대. 지금까지 대학생은 군대 가야하는 나이가 됐어도 징병이 유예되어왔어. 그런데 그 유예 제도를 곧 없앨 거래. 결국 모두 징병에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런대도 여기 지식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친일지식인 남 교복과 교모를 이냥 벗어버리고 / 모든 낡은 보람 이냥 벗어버리고/ 주어진 총칼을 손에 잡으라! / 적의 과녁 위에 육탄을 던져라...

친일지식인 여 오냐! 지원을 해라 엄마보다 나라가 / 중하지 않으나 가정보다 나라가 크지 않으나 / 생명보다 중한 나라 그 나라가 / 지금 너를 나오란다 너를 오란다.

강처중 여기는 이런 상황이야.

두 친일지식인이 서로를 바라보면 박수치며 서로의 시를 칭찬한다. 3류 광대와 같다.

화면에 비행기가 격추되는 이미지가 영사된다. 4월에 일본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미공군에 의하여 저격되는 모습이다. <4월, 일본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미공군에 의하여 사망> 자막이 영사된다. 이어서 6월에 국장이 치러지는 모습이 나온다. 자료화면과 함께 <6월, 야마모토의 국장>이란 자막이 영사된다.

일본대본영 일본제국은 연합함대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이상.

백인준 들리는 말로는 전선시찰을 가는 중에 미 공군기들이 나타나 야마모토가 탄 비행기를 격추시켰대. 죽은 것은 두 달 전인 4월이고, 사망사실을 숨기다가 6월인 지금에서야

장례식을 지르는 거래. 이렇게나마 일본인들의 전의를 다시 살리려는 거겠지.

장성언 과달카날 섬에서는 아주 참패를 했나봐. 굶어죽은 병사도 있을 정도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야. 일부 병사들은 죽은 동료의 시체를 먹기도 했다는 얘기까지 들고 있어. 솔로몬 제도에서 돌아온 병사들 가족들에게 그 참상을 얘기했나봐. 야마모토가 그 지역을 시찰 하러 갔다가 미공군에게 당했다고 해.

송몽규 진주만 공습을 지휘한 사람이 저렇게 전사할 정도면 전선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야.

윤동주 그 붕괴된 곳을 젊은 병사들로 채우려고 하겠지, 조선인병사와 우리와 같은 나이의 일본 젊은이들로 말이야.

친일지식인 남 (일본사람처럼 대충 꾸미고 일본어로) 교복과 교모를 이냥 벗어버리고 / 모든 낡은 보람 이냥 벗어버리고 / 주어진 총칼을 손에 잡으라! / 적의 과녁 위에 육탄을 던져라...

친일지식인 여 (일본사람처럼 대충 꾸미고 일본어로) 오냐! 지원을 해라 엄마보다 나라가 / 중하지 않으나 가정보다 나라가 크지 않으나 / 생명보다 중한 나라 그 나라가 / 지금 너를 나오란다 너를 오란다.

일본경찰 현 상황에서 질서를 해치려는 자들을 철저히 감시하라. 특히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 민족주의자들, 또한 조선인들의 행동을 주시하라. 제국에 반하는 행동을 할 소지가 큰 세력들, 제국의 위기를 이용하여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발본색원하라.

특고 서장들을 위시하며 특고형사들이 사방으로 퍼진다. 곳곳을 감시하러 가는 느낌이다.

송몽규, 윤동주, 백인준, 장성언, 김주현이 등장한다.

송몽규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징병문제가 결국 발에 떨어졌어.

백인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장성언 조선인 유학생 중에 징병 문제에 대해서 일본인 교수와 상의한 학생들이 있었나봐. 양심적인 일본인 교수들은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서 징병을 피하라고 충고했대.

김주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충고하겠지. 동주는 엄한 꼴 당했다며?

윤동주 같은 과 동급생들과 한 교수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가 대놓고 이 자리에 적국을 돕는 사람이 있다며 그런 사람은 스파이 짓을 그만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 누가 봐도 나를 말하는 것인 줄 알잖아. 그래서 나도 난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똑바로 대꾸했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동기생들은 그 말 신경 쓰지 말라고 나를 위로 했지만,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패전이 다가오니까. 자신들도 직감하는 거 아니겠어?

송몽규 모두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일단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상황을 봐서 다시 올 건지, 아닌지 결정하려고.

백인준 난 상황을 좀 더 보다가 여차하면 귀국을 할까해. 도쿄에서는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송몽규 고향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얘기한 것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물론 조심하면서 말이야.

장성언 동주는?

윤동주 나도 이번 여름 방학에는 돌아가기로 했어.

송몽규 동주는 친구들과하고 송별회도 했어. 거기서 노래도 했다고 하더라고.

장성언 친구들이 송별회도 해줬다고? 노래도 하고?
 윤동주 아무래도 지금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송별회를 했어. 일본친구들도 언제 전쟁에 끌려 나갈지 모르니까 서로 송별회를 한 거지. 한 친구가 이렇게 헤어지는데 노래 한곡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양하지 않고 아리랑을 불렀어.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살아서 두 번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청년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고. 그걸 보니 아리랑이 부르고 싶어졌어. 한 편으로는 그 노래를 들려주고도 싶었고. 조선반도에도 여기처럼 젊은 청년들이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백인준 다들 좋았겠네.
 윤동주 좋았지.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송몽규 모두 일본을 떠나게 되거나 고향에 닿게 되면 연락하자. 신상에 변화가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가족에게 연락해 주고.

백인준 그래. 또 보자.
 송몽규 계속 연락하자!
 윤동주 조심히 가!

백인준과 장성언, 김주현이 무대에서 나간다.

송몽규 고향 갈 준비는 다 됐어?
 윤동주 대충 된 것 같아. 짐은 일단 내일 부칠 생각이야. 너는?
 송몽규 지금부터 싸야지. 이제 교토도 이렇게 마지막인가? 다시 돌아오게 될까?
 윤동주 글썸... 쉽지 않을 것 같아. 익환이도 봄 학기 때 벌써 고향으로 돌아갔어.
 송몽규 어차피 갈 거면 빨리 가는 게 낫지. (똥가를 땅설이다가) 근데 동주야. 너 지난번에 얘기하던 여자하고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있잖아...
 윤동주 (사이. 딸을 돌린다.) 집에 가면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할 만한 친구들을 알아봐야 될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하려는 일에 보탬이 되지...
 송몽규 (어깨를 치면서) 말 피하지 말고... 연락은 계속 하고 있어?
 윤동주 그쪽도 이번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박 형에게는 상황 봐서 돌아오지 말라고 언질을 주었고. 대충 상황을 파악했는지, 자신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고.
 송몽규 그럼, 이번 방학 때 그 집에 가 볼 거야?
 윤동주 글썸.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논다.
 송몽규 그럴 땐...
 윤동주 뜨거운 마음이 가라는 데로 가야지. 그 말 하려는 거지?
 송몽규 물론이지...

둘이 웃는다.

송몽규 오늘은 저녁 먹으면서 걱정거리는 접어두고 문학얘기나 하자. 최근에 쓰고 있는 시 얘기도 하고.
 윤동주 좋지.
 송몽규 최근 네가 쓰고 있다는 봄 연작시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윤동주 시 얘기만 하자며!

송몽규 (놀리면서) 난 그 주인공이 너무 궁금한데...

송몽규가 놀리면서 밖으로 나가고, 운동주가 따라 나간다.

어두운 음악. 특고 사무실로 전환된다. 형사와 서장은 다른 공간에 있다. 각 사람을 톱조명으로 비추며 여기저기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좋다.

정보형사 2월 메이지 대학생 배신강 외 6명이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2월에 쓰시마 중학교 학생 임기동이 천황과 징병제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습니다. 3월에는 오사카에서 윤병윤이 조선청년독립당을 창당하고 당원 6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홍기섭 외 5명도 다른 독립단체 구성혐의로 도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5월에는 오사카에서 조선독립연맹이 결성되어 관련자 전원이 체포되었고, 6월에는 주오대 학생 허문현 외 4명이 지바현 후나바시 시에서 민족주의그룹을 만들어 민족운동을 하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벌인 소요와 반국가 행위는 빼고 학생관련 사건만 간추린 것입니다.

특고서장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 점점 더 전역으로 퍼지고 있잖아?

정보형사 그렇습니다. 조선인들이 있는 일본전역에서 독립운동 관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고서장 골치 아픈 인간들이야.

톱 조명이 들어오고, 서류를 든 특고 형사가 나타난다.

특고형사 보고 드립니다. 구니무라 무게이 조선이름 송몽규가 현재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쟁에 관한 각종 유언비어를 수집하고 퍼트린 혐의가 있으며, 동료들과 함께 징병제에 대한 불온한 사상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에도 치안유지법 위반이 확실하며, 동만주지역으로의 귀향이 성사될 시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선지역 경찰에게 정보를 넘길 것인지, 저희가 직접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고서장 구니무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조선반도에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게다가 거주지가 용정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곳은 더 위험지역이다.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

고오로기 구니무라와 함께 활동하는 히라누마의 경우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라누마의 경우, 구니무라와 같은 요시찰인물은 아닙니다. 주로 조선어와 조선 문화와 관련된 선전전과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고서장 히라누마를 필히 체포한다. 구니무라의 경우, 그 주위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뿐이다. 하지만 히라누마의 경우,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글을 쓰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 이런 인간들이 더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더 해로운 인물이다. 이 사건도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

고오로기 알겠습니다. (공문을 쓰는 것처럼) 재교토민족주의그룹사건 관련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신청함. 주동자 구니무라 무게이 조선이름 송몽규, 히라누마 도주우 조선이름 운동주를 체포 조사하고자 함. 그 외 제3고등학교학생 고희욱, 도시샤대학생 장성언, 김주현, 송용한, 릿교대학생 백인준을 체포 조사하고자 함. 이후 본서에서 조사 후 세부 사항을 보고하겠음.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주기 바람. 이상.

특고서장 체포를 승인함. 모두 체포하라.

제 8 장

시모가모(下鴨) 경찰서와 교토지방재소. 1943년 7월~1944년 3, 4월.

장면이 전환되면서 무대 위에 양쪽에 취조실이 꾸며진다. 테이블이 있고 그 뒤에 의자가 있다.

1. 취조실 1

형사들이 양쪽에서 송몽규와 윤동주를 데리고 와 의자에 앉힌다. 윤동주는 무엇인가를 번역한다.

특고형사 송몽규. 우린 너를 1년이 넘게 감시를 해왔다. 너 같은 요주의 인물을 우리가 그냥 놔둘 것 같았나? 지난 1년 동안 친구들과 나눈 모든 대화를 우리가 청취하고 있었다. (서류를 주면서) 한번 봐라. 이게 너희가 나눈 대화가 아니라고 하겠나?

송몽규 당신네들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특고형사 너희들이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 했나?

송몽규 다 알고 한 짓이지, 그럼 모르고 한 짓 있습니까?

특고형사 괜한 영웅주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송몽규 우리는 단지 미래를 준비한 것뿐입니다.

특고형사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징용에 나간 후 새로운 무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해 민족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강령을 만들었나?

송몽규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게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특고형사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다가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나? 작년에 김현술이라는 학생이 징용에 나간 후에 연합군에 투항해서 일본에 대적하라는 말을 퍼트리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모르나?

송몽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체포되었죠. 올해 3월에도 조선인유학생들이 독립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고형사 그런데도 이런 모임을 하고 이런 문서를 만든단 말인가?

송몽규 조선 학생들은 지금 징병에 끌려가기 일보직전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일본의 전쟁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입니다.

특고형사 이것 봐. 일본과 조선은 이미 1910년에 한 나라가 되었어. 조선은 없고, 조선인도 없다. 우린 모두 일본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위한 일이면 너희를 위한 일인 것이고, 일본의 전쟁은 너희들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나?

송몽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나라 국민이라면서, 왜 조선인을 차별하는 건가요? 임금에서도 차별하고, 승진에서도 차별하고, 교육에서도 차별하고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겠습니까? 형사님은 그 말을 믿을 정도로 바보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믿는 척 하는 위선자입니까?

특고형사 구니무라 무게이. 넌 일본인이다. “일본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패전하는 기회를 타서 조선 출신 군인들도 큰 구실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도 목숨을 바쳐 꺾기를 해야 한다.” 이걸 반역행위다.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일 뿐이야. 알겠나?

송몽규 일본은 내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국가를 배신합니까? 이걸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특고형사, 책상을 내리친다.

2. 취조실 2

윤동주가 무엇인가를 번역하고 있다. 그가 번역하던 것을 고오로기가 빼앗아 본다.

- 고오로기** 자네가 <조선사개론>을 동료들에게 돌려 보여주며,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나?
- 윤동주** 그 사람들에게는 심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민족의식이 있으니까요.
- 고오로기** 조선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다고? 좀 우습군. 조선 최고의 작가 하면 이광수, 최남선, 주요한, 모윤숙 등이 아닌가? 그들이 쓴 글을 보면 조선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 윤동주** 배운 게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정신을 쉽게 팔고 치욕을 잘 견디나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들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겁니다.
- 고오로기** 과연 그럴까? 그러려면 일본이 패전을 하던지 조선 땅에서 철수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윤동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가 문제이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 고오로기** 그날은 오지 않아. 시인이라서 망상이 가득 찬 것인가? 시나 문학으로 유학생들을 독립투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윤동주** 그들은 이미 투사입니다. 조선 사람은 누구나 투사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 고오로기** 투사? 지금 조선의 지식인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던데?
- 윤동주** 조선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주에서 여러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조선 곳곳에서도 노동자, 학생, 평신도들이 끊임없이 저항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전역의 학교에서 조선학생들이, 공장에서 조선노동자들이 독립을 생각하고 독립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고오로기** 우리가 서양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무슨 독립인가?
- 윤동주** 그건 서양제국으로부터 일본제국으로 점령자를 바꾼 것 뿐입니다. 독립은 자신의 땅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독립입니다. 일본이 점령한 곳 중에 그런 곳이 있나요? 독립은 막지 못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 고오로기** 우리가 당신들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나?
- 윤동주** 그걸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더 많은 착취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와 시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구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들을 스스로 발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 고오로기** 시인이라면 아름다운 시나 쓸 것이지, 무슨 민족을 독립시킨다고, 음모를 꾸미고 <또 다른 고향>이니 <슬픈 족속>이니 하는 시를 쓰는 건가?
- 윤동주** 시인은 아름다움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함과 슬픔과 불의, 분노를 노래합니다. 예로부터 시인은 항상 그 시대의 아픔과 함께 했습니다. 나도 그런 시인의 길을 따를 뿐입니다.
- 고오로기** 시나 문학은 장식품일 뿐이야. 네가 쓰는 시는 아무도 읽지 않아. 문제아들이나 읽겠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나, 문학전문가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런 시를 써야 하는 거지.

그래야 교과서에도 실리고, 나중에 대시인으로 칭송받는 것이 아닌가?

윤동주 나는 그러기 위해서 시를 쓰지 않습니다. 문학애호가나 교양인들을 위해 시를 쓰지 않습니다. 매일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매일 가게의 문을 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시를 씁니다.

고오로기 어리석군. 너는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 거야.

윤동주 아니요. 나는 바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고오로기, 책상을 내리친다. 동시에 특고 서장이 등장한다.

특고서장 재교토조선인학생민족주의그룹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지난 7월 체포와 함께 5개월간 조사를 마쳤다. 범인들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월 6일부로 기소의견을 첨부하여 검사국으로 송치한다.

3. 취조실 1

에지마 검사가 송몽규의 취조실로 들어온다.

에지마 자네가 조사한 문서를 잘 읽었다. 조선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제대로 조사했더군. 조선 유학생들의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른 면이 있어 흥미로워. 자네 친구와 추상적인 문제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차별문제지.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희망을 주는 거야. 일본은 곧 패망한다. 차별이 없어질 독립이 가까웠다는 거지. 다음에는 독립의 방법이 결국 무력에 의한 봉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다른 나라 예를 들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을 현혹시킨 후 지금부터 해야 할 행동이 나와. 우선 민족문화를 공부하면서 정신무장을 한다. 다음에는 징병에 나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군사기술을 익힌다. 독립의 때가 되면 그 군사기술을 사용한다. 논리는 잘 만들었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든 것이 담겨있어.

송몽규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만들었네요.

에지마 그런데 여기에 큰 결점이 있어. 일본이 패망한다? 일본은 서구세력이 지배하던 모든 아시아 지역을 해방시켰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는 물론이고, 호주도 위협을 하고 있어.

송몽규 신문에 나온 것, 일본정부가 선전하는 것만 사실로 믿으니 그렇게 생각하겠죠. 작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4척이 격침되었습니다. 3척은 5분 만에 파괴되었죠. 과달카날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육군은 열대정글 속에서 완패했습니다. 기관총이 난사되는 해변을 일본병사들이 돌진하다가 폐죽음을 당했습니다. 정글에서 굶어죽고, 열대병으로 죽어 넘어 갔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가족들에게 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에지마 유언비어야.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리는 거짓선전이야. 혹시 자네도 사회주의자인가? 아니면 무정부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

송몽규 나는 그 모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에지마 (서류를 확인하며) 중학교 시절, 중국으로 가서 군사학교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던데. 잘 했으면 지금쯤 장교가 되었겠어. 그때의 짧은 지식으로 무력을 통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독립은 불가능해. 그것을 모르겠나? 교토제국대학을 다니는 지성인이?

송몽규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당신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국은 망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역사책을 보아도 그 어느 제국도 영원히 패권을 유지한 예가 없습니다. 그 강대한 로마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으며, 그 거대한 몽골제국이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점령한 당한 나라들은 언젠가 독립을 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독립을 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지마 망상이야. 일본제국은 멸망하지 않아.

송몽규 지난 4월 일본해군의 최고 사령관이 미공군에 의하여 저격당했습니다. 최고 사령관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일본 제국의 거대하고 탄탄한 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으로 일본 젊은이들을 밀어 넣고, 이제는 조선젊은이들까지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만이 그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지마 지금 조선의 독립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이롭다는 말인가?

송몽규 조선의 독립운동이 일본을 패망으로 이끈다면 결국 일본 젊은이들의 죽음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지마 괴변이다. 일본제국이 패망한다고? 망상이다. 머릿속이 괴변과 망상으로 가득 찼군.

송몽규 내가 괴변과 망상으로 가득 찼다구요? 아닙니다. 당신이 현실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젊은이들의 피값으로 얻은 부유함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국의 본모습입니다. 일본은 패망합니다. 나와 당신 중에 누가 맞는지 곧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에지마 과대망상이야. 구니무라, 너는 그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다. 괴변과 망상. 그게 너의 죄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4. 취조실 2

에지마 검사, 윤동주의 취조실로 들어간다.

에지마 자네에 대한 문서를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웠어. 일본어, 조선어, 중국어를 어려서부터 배웠고, 영어를 전공했고 연희전문학교 3학년 때부터 프랑스어 공부, 도시샤 대학에서도 영문학을 공부하며 프랑스어 공부했어.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자네 쓴 글을 보니 서양철학에도 정통하고, 동양철학 공부도 꽤했더군. 전공이 영문학이면서 말이야. 일본인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 셈인데, 왜 이런 짓을 했나?

윤동주 나는 조선인입니다.

에지마 아쉽군. 여러모로. 조선은 사라졌고, 조선인도 이제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니... 참 아쉬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네가 쓴 시를 읽었어. 역시 아쉽더군.

윤동주 그랬나요?
 에지마 자네가 일본 시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명상적이고, 자기반성적이고, 작은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이야. 그런데 자네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 시들이 불쾌해진다 말이지.

윤동주 그런가요?
 에지마 모든 시가 잘 나가다가 결국은 희생을 감수하겠다 내 길을 가겠다는 결론으로 끝나니, 일본인이 나로서는 그 의도가 불손하게 느껴지지. 너의 그 부끄러움은 마음에 들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지만 후반부에 가면 나와 반대편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말이야.

윤동주 한 인간으로 읽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에지마 한 인간으로?
 윤동주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지마 난 기독교가 싫다. 서양종교는 적국의 종교일 뿐이야.
 윤동주 그렇다면 중국 고전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에지마 중국이 그런 책 때문에 망했는데 읽을 가치가 있나?
 윤동주 그럼 시는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신가요?
 에지마 이봐, 문학청년. 문화는 나약한 자들이 자기 위로를 하는 짓거리야. 그 문화라는 것은 말이야, 일개의 군인의 군화발에도 짓밟힐 정도로 나약한 것이고 결국 뜬구름 잡는 얘기들일뿐이야.

윤동주 그렇다면 왜 그것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서 사람들로 전해 내려왔을까요?
 겸사님이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전인가요?
 에지마 현대사회는 법으로 사회를 다스리지. 내가 믿는 것은 경전이나 고전, 시가 아니야. 군이 표현을 하자면 내 경전은 법전이야.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힘이고 권력이야.

윤동주 그 법은 과연 얼마나 같까요? 겨우 당신들이 지배하는 동안 아닌가요?
 에지마 뭐라고?
 윤동주 지금까지 수많은 법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는 법이 몇 가지나 되나요? 한 사회가 몰락하면 법도 함께 몰락합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책들은 지금도 읽히고 영향을 줍니다. 제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신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인간의 올바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세상이 그러하네 내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가다듬고 행동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에지마 그래서 내가 불쾌한 것이고.
 윤동주 그런 글들은 우리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전과 고전, 시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에지마 그러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나?
 윤동주 영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에지마 네가 쓴 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나?
 윤동주 영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읽기를 바랄 뿐입니다.
 에지마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윤동주.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윤동주 아니요. 그런 날은 옵니다. 내 시가 옳다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겁니다.
 에지마 너의 모든 시는 지금부터 압수당할 것이고, 파기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제국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5. 교토 재판정

짧은 음악과 함께 무대가 재판정으로 바뀌어 있다. 에지마 검사가 구형을 한다.

에지마 지난해 7월 특별고등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재교토조선인학생 민족주의그룹 사건은 치안유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고 송몽규와 운동주는 같은 고향출신으로 근 1년간 교토에서 유학하며, 조선인 학생들과 시내 각처에서 회합을 하며 일본제국에 반하는 사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이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선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내선일체는 허상이며 조선의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일본은 필연적으로 패망한다. 그 패망은 조선의 독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패망을 앞당겨야 한다. 셋째,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을 조사연구한 결과, 무장독립운동을 통해 조선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몰락을 위하여 아시아 민족과 연계하여 일본에 대항하며, 전쟁 종료 시 조선의 독립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 무장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 민족문화를 이용한 정신무장을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문학을 이용하여 민족의식을 키워나간다. 다섯째, 무장투쟁을 준비한다. 무장투쟁을 위해서는 군사기술 습득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강제징용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일본이 패전하거나 아니면 국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올 때, 이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약된 바와 같은 내용을 송몽규와 운동주는 본 사건에 연루된 자들과 함께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동조자들을 규합하여 이 불온사상을 퍼트리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전에도 발생하였으나 이번 사건은 좀 더 심각하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고향이 만주지역 용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제국에 반하는 각종 세력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그들의 생각을 다른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일본군대의 후방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제국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도 조선어와 조선문화를 가르치며 서양제국 종교를 방패로 삼아 민족운동을 해왔던 연희전문학교 출신입니다. 그들의 선생과 동기동창들 모두 일본제국에 적대적인 인물들입니다. 더 넓게 두 사람의 인맥을 살펴보면 조선어와 조선문화를 이어가려는 사람들과 문화 교육 종교계 인사들은 물론, 민족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까지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상과 활동은 그만큼 커다란 파급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활동을 볼 때, 송몽규는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규합하며 그룹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운동주는 그룹의 정신적인 토대를 만들고 있으며, 자신들과 같은 반일본적인 인물들을 교육 생산해 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송몽규와 운동주는 조선의 민족의식을 앙양하고, 일본의 패망을 망상케 하고, 아시아 다른 민족과의 연대를 이루고, 최후로는 무력봉기를 통하여 일본을 전복하려는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으며, 귀국 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

상을 전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상과 행동은 식민지 학생들은 물론 현재 활동하는 반국가적인 단체들에게 불손한 동기와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바,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대일본제국에 심히 위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대일본제국을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치안유지법 5조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각각 3년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검사가 논고를 끝내고 앉는다.

- 재판장** 피고 구니무라 무게이. 할 말이 있는가?
- 송몽규** 당신들이 일본법으로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창피해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일본의 것이 된 것 같은 환상에 빠져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어느 제국도 영원히 패권을 유지한 예가 없습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부정한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지만, 이 시대가 지나면 나는 결국 무죄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당신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재판장** 괴변이다. 그런 괴변이 너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피고 히라누마 도오쥬우, 할 말이 있는가?
- 윤동주** 난 무죄를 주장합니다.
- 재판장** 무죄를 주장한다고?
- 윤동주** 그렇습니다. 난 무죄입니다.
- 재판장** 피고는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가?
- 윤동주** 난 내가 한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난 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핍박받는 민족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죽음을 앞둔 젊은이들이 살길을 찾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우리는 일본제국이 가라고 하는 죽음의 길을 순순히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어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 재판장** 피고는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죄인이다.
- 윤동주** 옳지 않은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난 부정한 법을 따르기 거부하며, 그렇기에 나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 재판장** 망상이다. 시인이어서 그런가? 모든 사람은 국적이 있고, 그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피고는 조선출신이다. 조선은 이제 일본과 합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인은 일본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그대들의 괴변과 망상을 듣고 싶지 않다.

재판장이 선고봉을 내리친다.

- 재판장** 피고인 구니무라 무게이,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가?
- 송몽규** 난 무죄를 주장합니다.
- 재판장** 피고인 히라누마 도오쥬우,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가?
- 윤동주** 난 무죄를 주장합니다.
- 재판장** 재교토 조선인학생 민족주의그룹 사건으로 명명된 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 법

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치안유지법 제 5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구니무라 무계이, 피고 히라누마 도오주요를 각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재판장이 선고봉을 내리친다. 팡! 팡! 팡!

6. 윤동주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선고봉이 내리쳐질 때, 등장인물들이 소식을 들은 것처럼 무대로 들어온다.

* 용정

윤영석이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윤영석 아버지! 동주가 2년형을 받았대요.

윤하현 뭐라고?

윤영석 죄목이 독립운동이랍니다. 몽규도 똑같이 2년형을 받았구요.

윤하현 독립운동이라구? (사이.) 2년이면 신민회 사건 때 양기탁, 김구 같은 주모자들이 받은 형량과 같은 거야, 알겠니? 작년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최현배 선생은 4년을 선고 받았고, 이희승 선생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 2년이면 중형이야.

윤영석 지금이 전쟁통이니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려는 것이겠죠!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면서) 하지만 2년이라니!

김용이 자리를 뜨려고 한다.

윤하현 에미야? 어디 가려구?

김 용 장에 가려고.

윤영석 (의아해 하면서) 지금 장에?

김 용 장에 가서 옷감 좀 사오려고.

윤영석 옷감은 갑자기 뭐 하시려구?

김 용 감옥에서 필요한 옷가지를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김용이 나가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린다. 가족들도 슬픔을 되씹는다.

* 만주 만보산

문익환이 교회 일을 하며 지내는 곳이다.

문익환 그때 너와 함께 왔었어야 했는데, 나만 이렇게 북간도에 있네. 2년? 동주야, 몽규야! 내가 좀 더 너희 둘을 다그쳤다면 함께 왔을 텐데... 우리 다시 만나야 해. 2년만 견뎌. 여기 친구들은 지금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어. 언제 어디로 끌려갈지 알 수 없어. 지옥이 따로 없다. 버텨야 해, 동주야 몽규야. 우리 다시 봐야한다. 꼭 다시 봐야 해.

* 서울

서울에 연전친구들이 모여 있다.

라사행 백인준이와 장성언이는 조사만 받고 재판을 받지 않았대.
강처중 그나마 다행이네요.
라사행 7월에 체포되어서, 5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대네. 12월에 검사국으로 넘어 가서 또 조사를 받았고, 2월 22일에 기소되었다고 해. 이어서 재판을 받고 동주는 3월 31일에, 몽구는 4월 13일에 선고를 받았대.
강처중 규슈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로 갔다고 하더라구요.
라사행 조금 알아보니까, 치안유지법을 어긴 조선인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대부분 그리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좀 이상해. 모두 그리로 보낸대.
강처중 동주야, 나에게 두고 간 것들이 있잖아. 그거 가져가야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꼭 가져가라. 그리고 네가 쓴 시들. 네가 올 때까지 이것도 잘 보관할게. 그리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

강처중과 라사행, 슬퍼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감정을 참는다.

* 함경북도 온성

박춘혜가 윤동주의 소식을 듣고 혼자 앉아 있다. 박춘혜 오빠가 들어온다.

박춘혜 오빠 소식 들었구나?
박춘혜 예.
박춘혜 오빠 2년 형이라던데...
박춘혜 지금이 4월 초니까. 벌써 네 달을 보냈어요. 45년 11월 30일에 나오니까 이제 스무 개월이 남았네요.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요.

박춘혜, 감정을 추스리려다가 울음을 터트린다.

박춘혜 오빠 (울고 있는 박춘혜를 안아 준다.) 춘혜야.

* 전남 광양

정병욱이 징병에 나가려고 가족과 작별을 한다.

정병욱 어머니, 너무 슬퍼 마세요. 저만 징병에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도 함께 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정병욱 모친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라.
정병욱 부탁드릴게요. (시집을 어머니에게 주며) 어머니, 이건 제 목숨만큼 소중한 시집입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정병욱 모친 (시집을 받으면서) 알았다.
정병욱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정병욱 모친 그런 말 하지 마라.
정병욱 혹시라도요. 제가 오지 않게 됐을 때 동주 형이 오면 전해주세요. 혹시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연희전문학교에 보내 주세요. 동주 형과 제 얘기를 하면서요.

정병욱 모친 알았다.

모든 사람이 슬픔을 간직한 채 각자가 가야할 길로 떠난다. 장면이 끝난다.

제 9 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전황에 대한 내용이 영사된다. 미군이 점차 섬을 탈환하고 일본 본토로 좁혀오는 상황을 보여준다. 1943년 4월부터 1944년 2월까지의 전황이다.

〈1944. 3. 11 윤동주 2년 징역형 선고〉, 〈1944 4. 13 송몽규 2년 징역형 선고〉, 〈1944. 6 미군 사이판 섬 상륙. 수비대 전멸〉 〈1944.7 괌 탈환〉, 〈1944. 8 학도근로령, 여자정신근로령〉, 〈1944.9 타이완 징병제 실시〉, 〈1944.10 레이테 만 해전. 일본제국 연합함대 붕괴, 카미카제 등장〉 등이 자료화면과 함께 영사된다.

마지막으로 〈1945년 2월. 후쿠오카(福岡) 형무소〉란 자막이 영사된다.

1. 형무소의 복도

형무소 복도. 수형자들과 간수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간수에게 이끌려 서로 반대방향으로 가다가 만난다.

송몽규 동주야!

윤동주 몽규야!

송몽규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윤동주 주사를 맞고 오는 길이야. 너는?

송몽규 간수장이 나를 보자고 한 대. 그래서 가는 거야.

윤동주 언제 잘 지내?

송몽규 건강이 안 좋아. 그 주사를 맞을수록 더 심해져. 마치 실험실 쥐가 된 느낌이야.

송몽규가 비틀거리며 기침한다. 윤동주가 그를 잡는다. 둘이 서로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송몽규 그래서 난 주사를 안 맞겠다고 그랬어. 아무래도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맞지 않겠다고 해.

윤동주 (몽규에게) 나도 그 주사 이후로 자꾸 기억력이 흐려져. 몸에 좋다고 주사를 놓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송몽규 글썸 말이야.

간수들이 둘을 떼어 놓는다.

송몽규 참! 고희욱이 소식 들었어?

윤동주 아니?

송몽규 여기서 나가서 학교에 갔더니 낙제처리가 되어 있었대,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갔대.

윤동주 다행이다. 희욱이라도 풀려났으니! 낙제된 것은 안 됐지만, 고향에 돌아갔다는 게 부럽기만 해... 익환이는 지금 만주에서 잘 지내겠지?

송몽규 올해가 1945년이니까 만주로 간지 2년이 넘었네. 잘 있을 거야.
윤동주 그래. 개라도 피해서 다행이야. (사이.) 그나저나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송몽규 응, 나도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도 좀 따뜻해지겠지?
윤동주 그렇겠지...
간 수 가자!
윤동주 건강 조심해.
송몽규 그래, 너도 조심해.

윤동주, 가려고 한다.

송몽규 동주야.

윤동주, 돌아본다.

윤동주 왜?...
송몽규 미안하다.
윤동주 뭐가?
송몽규 나 때문에 니가 이 고생하는 거니까. 정말 미안하다. 나만 아니었어도 네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윤동주 (말을 자른다.) 몽규야, 아니야. (잠시 그를 바라 본 후에) 미안한 게 어디 있지? 그리고 난 후회 안한다. 내가 시에다 그랬었지, 언젠가 때가 오면...
송몽규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러겠습니다.”
윤동주 (사이.) 그래. 난 그렇게 한 것뿐이야.
송몽규 (사이.)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간수가 송몽규를 끈다.) 또 보자.
윤동주 물론 또 봐야지.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 걸어가던 송몽규가 고개를 돌려 윤동주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윤동주가 돌아보자, 송몽규가 자기 앞에 있는 열려진 문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힌다.

송몽규 안 돼. 안 돼. 난 주사를 맞지 않겠어. 주사가 이상해. 난 죽기 싫어. 안 돼! 주사가 나를 죽이고 있어. 동주야. 동주야....

윤동주 몽규야! 몽규야!

간수들이 둘 사이를 막는다. 송몽규는 의사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수들에 의하여 끌려 나가고, 윤동주는 송몽규에게 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한다. 이어서 윤동주는 자신의 감방으로 내던져진다.

2. 윤동주의 감방 안

윤동주 홀로 있다. 주위를 조용해진다. 이 장면에서 윤동주는 점차 의식을 잃어간다.

윤동주 한 달에 하나씩 허락되는 엽서. 그것도 일본어로만 써야 하지. 이곳에 일을 써 보내면 검은 먹으로 지워서 보내지겠지? 아침부터 계속되는 중노동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

어.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몸에 이상한 반응을 느낀다.) 저 놈들은 주사를 놓고 나면 꼭 숫자 계산을 시켜. 이유가 뭘까? 계속 나빠지는 산수 실력을 창피해 하라는 건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운동주가 흘린 듯이 그 소리를 듣는다.

운동주 겨울에 귀뚜라미 소리가 나나?

차가운 겨울 바람소리가 난다. 이후로부터 음향과 영상이 운동주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멀리 들리는 음악 소리가 겹쳐서 들리고, 영상으로는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림들과 시의 영상들, 그리고 순교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더줄브되면서 보인다.

운동주 가을에 들었던 소리가 생각났나봐. 이젠 바람소리만 들리네. 소리마저 차가워. 겨울바람이니 차가울 수밖에. (사이.) 여긴 너무 추워. 겨울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겨울은 길겠지? 아마 봄을 거의 잊어버릴 때가 되서야 봄이 찾아 올 거야. (사이. 연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땐 아무 것도 몰랐어. 그저 즐거웠었지. 팔을 뻗어서 잡고 싶었던 하늘들.... 난 지금껏 부끄러운 것 없이 살아왔을까? 그렇게 살아왔나? 하늘을 보면서도 떳떳하고 싶었는데... 적어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지. 후회하지 않아. 그래, 후회하지 않아. (여자의 웃음소리 또는 노래 소리.) 사랑? (박근혜의 소리, 노래 또는 모습이 등장한다.) 왜 시인에게 사랑은 가장 어울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지? 죽음의 언덕 아래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 내 옆구리의 상처. (몸이 아파 온다. 몹시 괴로운 듯 바닥에 반쯤 눕는다.) 별이 보고 싶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별을 바라보고 싶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이전에 썼던 구절이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야.

바람소리가 다시 들린다. 운동주는 다시 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 거의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이다.

운동주 저 바람은 언제 불기를 멈출까? 바람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괴로워. 바람이 멈추면 작은 잎새들도 고이 잠들 수 있을 텐데.... 저 바람을 멈추게 하고 싶어. (더 작게) 저 바람을 멈추게 하고 싶어. (바람소리가 멈춘다.) 그래, 이제 멈췄나봐. 이젠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아. 나는 지금 별들 속에 있는 것 같아. 몽규야, 들리니? 이 음악 소리 말야. 별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 벌써 봄이 왔나? 따뜻해. 그래. 아주 따뜻해.

조명이 서서히 꺼진다. 음악 소리가 멈춘다.

운동주 (어둠 속에서 길게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아.....!

음악이 시작된다. 조명 하나가 서서히 밝혀지면, 차가운 감방에 쓰러져 죽은 운동주의 모습이 차갑게 보인다. 그의 주위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운동주를 비추던 조명이 모아지며, 하나의 점을 바꾼다. 그 점이 사라지는 순간 무대 위에 하나의 조명이 별처럼 밝게 빛났다가 별빛 속으

로 묻힌다. 마치 그가 별로 바뀐 것 같다. 모든 조명이 다시 서서히 암전된다.

에필로그

다시금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린다. 운동주를 아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들어온다. 윤영석이 운동주의 낱골단지를 들고 있다.

윤영석 가서 보니 동주의 시체에 하얀 수의를 깨끗하게 입혀 놨더군요. 방부제를 썼는지 전혀 상하지 않고 평상시 그대로였어요. 고생을 하다가 죽은 것을 표시내지 않기 위해 애쓴 것을 알 수 있었죠. 시체를 찾기 전에 몽규를 면회했는데, 거의 해골만 남았더군요. 돌이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어찌나 서럽던지... 아들이 공부한다고 객지에 나갔다가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는 게 그렇게 서럽더군요. (눈물을 닦는다. 사이.) 동주를 화장했어요. 그리고 뿔가루를 단지에 넣어 가지고 배를 탔죠. 현해탄을 건너는데 바다물이 넘실거리면서 자유롭게 흘러가대요. 그래서 뼈 한 줌을 꺼내서 뿌려줬어요. 넘실거리는 바다에 뿌려줬어요. 자유롭게 흘러가라고요. 남은 뼈는 이 고향 땅에 묻어주려고 가져왔어요. 시인 운동주를 고향 땅에 묻어주려고요.

사람들이 장지로 가듯이 무대를 서서히 떠난다. 문익환, 박춘혜, 정병욱만 무대에 남는다.

문익환 그렇게 너를 보냈어. 그렇게 허망하게.... (사이.) 시인은 가고, 시만 남았어. 동주 니가 항상 말했듯이 말이야.... (시집을 바라보며) 너의 씨앗들, 너의 고통의 자식들... (시선을 먼 곳으로 고정하고) 그래, 네가 너의 십자가를 졌듯이, 네 죽음이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 (사이.) 넌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를 남겨 주었어.

세 사람이 시를 읽을 때, 무대에 운동주가 등장한다. 장지로 간 사람들이 나간 쪽에서 들어온다.

박춘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정병욱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문익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문익환이 운동주의 시 구절을 읽을 때, 정병욱이 운동주의 시집을 무대 중앙에 놓는다. 마치 무덤 앞에 제물을 받치는 것 같은 분위기다.

세 사람 모두 다음 구절을 읽으려다가 감정이 북받친다. 운동주가 다음 구절을 담담하게 읽는다.

운동주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세 사람이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다짐하듯이 읽는다. 운동주의 말보다 아주 느리게 시의 행을 읽는다.

정병욱 모가지를 드리우고
박춘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문익환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세 사람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조명이 서서히 암전 된다. 마지막에 무대 중앙에 놓인 시집에만 조명이 비친다. 음악과 함께 마지막 조명이 꺼진다.

끝.